서울大學校 同窓會報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協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런 同窓會

發行人 崔主鎬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朴正雄

發行所
서울大學校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1】月刊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4년 6월 1일 第195號

單科大學 總會 러시…活性化 다짐

6월은 同窓會 活性化의 달 = 母校를 기리며 親睦과 友誼를 돈독케 하는 定期總會와 각종 모임이 한창이다. 사진 ①師範大學同窓會 定總 ②農科大學과 ③行政大學院 및 ④環境大學院에서 개최한 定總 모습.

冠岳春秋

總同窓會 새 進路

서울大總同窓會가 구성된지도 30년이 되어간다. 母校同窓는 그 이전에는 各單科大學別로 同窓會를 조직하여 나름대로의 母校支援과 同窓紐帶事業을 펼쳐왔다. 그중에서도 文理大同窓會, 法大同窓會, 師範大學同窓會등이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會員이 적은 單科大學은 同窓會組織조차 옳게 갖추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최초에는 이러한 單科大學同窓會의 聯立體로 서울大學校總同窓會를 구성하였고 각기 독립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그 결과 조직의 重複性을 가져왔으며 마찰조차 없지 않았다. 서울大學校總同窓會는 母校의 冠岳캠퍼스 통합으로 單科大學同窓會를 支部로 하는 서울大學校同窓會로 되었다. 그러나 支部同窓會와 本同窓會間에는 競爭意識도 있었고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어 잘 機能하지 못한 감이 있었다.

서울大學校同窓會 시대는 會誌를 발간하고 同窓會館을 건립하고 장학금을 수여했을 뿐만 아니라 登山大會등을 개최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他私立大學의 同窓會 활동에는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母校支援事業도 不振했고 科學基金마련등의 公約은 空約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同窓會와 母校간의 基金募金에 있어서의 混線의 결과이기도 했다.

同窓會는 總同窓會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選任된 第15代 任員들은 心機一轉하여 同窓會 발전의 새 轉機를 마련하고 있어 흐뭇하다. 新任 金在淳會長은 취임후 副會長을 16명이나 增員하였고 事務處長과 會報主幹들을 更迭하여 새로운 도약에의 巨步를 내디디고 있어 기대되는 바 크다. 또 同窓會報編輯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論說委員을 12명이나 補強하였고 同門大統領과도 單獨會見하여 母校發展을 위한 플랜을 토의함으로써 總同窓會와 母校 발전을 위한 布石을 하고 있다.

總同窓會는 單科大學同窓會를 活性化하도록 支援할 것이라 하며 會報의 增刷, 理事의 大幅 增加등으로 人力과 豫算을 대폭 늘릴 것이라 한다. 이는 이제까지의 消極的타성에서 벗어나 積極的 攻勢的 出發이라는 점에서 同窓會의 再跳躍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겠다.

總同窓會의 起死回生을 위하여는 많은 장애가 놓여 있다. 그 첫째는 母校의 發展基金募金과 어떠한 관계를 定立하여야 하는가이고, 둘째는 各單科大學同窓會와 어떻게 협조하는가이고, 세째는 20萬 同門들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는가 이다.

同窓會는 同門들의 親睦을 위한 社交場일 뿐만 아니라 母校발전의 後援者 역할을 해야한다. 이제까지의 疏遠한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밀접한 접촉과 협조가 있어야 하겠다. 同窓들이 同窓會基金募金과 發展基金募金에 있어 重複感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요, 母校에서도 同窓會의 건의를 보다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에는 總同窓會가 各單科大學同窓會의 求心點으로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單科大學同窓會의 활동을 總同窓會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組織의 二重性에서 오는 混線을 막아야 할 것이다. 가능한 限 同窓會館에 모든 單科大學同窓會가 入住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이며 同窓會報도 各單科大學特輯版을 만들어 各單科大學의 支援에 힘써야 할 것이다. 總同窓會는 그 동안에도 各單科大學同窓會의 活性化를 위하여 노력해 왔고 또 總同窓會名簿을 만드는 등 노력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海外支部組織을 더 활성화하고 國內 市·道支部 조직도 완성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하겠다.

同窓會報는 이제까지의 同窓消息爲主編輯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母校와 祖國의 발전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同窓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會報가 서울大人의 知性과 野望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대폭적인 增面도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跳躍을 위한 總同窓會의 組織을 完備하였기에 同窓들의 새 任員들에 대한 기대는 한껏 부풀어져 있다. 새 任員들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새 任員들의 犧牲的인 奉仕活動을 빌면서 모든 동문이 總同窓會의 跳躍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바란다.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95호

각급 同窓會 정기총회 열어 親睦도모

「엔지니어 하우스」 建立 계획

工大 開校50주년 기념행사 준비 한창

工科大學同窓會(회장 李達雨)는 지난달 22일 母校 工大 교수회의실에서 9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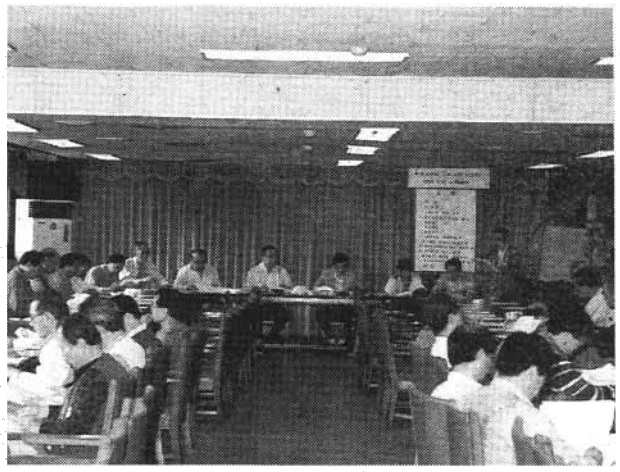
李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전문핵심인력의 산실에서 성장, 그 역할에 충실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이제부턴 기술발전의 역군으로서 뿐만 아니라 후배에게 봉사와 화합의 정신등 정서적 소양을 남겨줄 수 있는 선배가 돼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鮮于仲皓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 준공될 1만2천평 규모의 공대건물과 엔지니어하우스건립 등 앞으로의 발전상이 기대되며 그만큼 동문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대 50주년 기념행사등 앞으로 계획된 同窓會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8월에 정년퇴임한 黃宗屹, 李光魯 元鍾洙교수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그 공로를 치하했다. 또 회무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은 후 9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9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한편 2년 임기의 회장 선출에서는 李達雨 現회장이 연임됐으며 李회장은 『엔지니어하우스건립을 마무리 지으라는 뜻으로 알고 임기동안 작은 힘이나마 모교와 동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총회가 끝나자 참석 동문과 그 가족들은 공대 37동을 출발, 관악산계곡을 경유해 농업생명과학대학 안양수목원에 이르는 등산대회에 참가해 점심식사와 경품추첨등 同會에서 마련한 특별순서로 흑겨운 시간을 가졌다.


▲지난 22일 개최된 工大 정기총회

法人설립 基金마련이 올 목표

農大 박물관支援문제도 검토

農科大學同窓會(회장 沈鍾燮)는 지난 14일 母校 대형강의동에서 定期總會를 개최, 동문간의 우의를 증진하는 한편 「스승의 날」을 맞아 은사와의 만남, 모교의 발전상을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雨中에도 沈회장을 비롯 1백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1, 2부로 나눠 1부에서 경과·결산·감사보고에 이어 9천9백20만원에 달하는 94년도 예산을 승인했다.

沈회장은 『올해는 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기금마련에 중점을 두고 農業科學史 博物館, 학생회가 발간하는 常綠誌, 奬學金수여등 모교 지원에 힘쓸 것』임을 표명했다.

新入회원 歡迎宴 베풀어

齒大定總 母校지원 다짐

齒科大學同窓會(회장 李春根)는 지난달 20일 母校 齒大 1층 강의실에서 9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閔丙晙동문 會長으로 추대

師大 總會場서 任員陣도 개편

師大同窓會(회장 閔丙晙·斗山食品 副會長)는 지난달 28일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本會 李聖秀부회장등 동문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차 정기총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趙鏞樂회장은 인사말에서 『2년의 임기가 다 하는날이라 감회가 깊다』면서 『女性同門會 창립과 각종 同好모임의 활성화는 큰 성과였지만 지방과 해외지부와의 연계는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새 任員陣이 동창회를 위해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들이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黃晩益학장보의 축사가 끝난 후 한국걸스카웃 總裁로 취임한 卞柱仙동문등 7명에 대한 축하화환 전달식이 있었으며, 초대회장으로서 여성분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 온 金榮義동문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후 회무보고와 93년도 결산심의, 9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및 예·결산 심의가 있었다.

이상의 보고사항과 심의사항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이날의 가장 중요한 案件이었던 任員改選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副會長 2명과 理事선임은 이후 新任會長에게 일임키로 하고 남은 會長團과 監事만을 선임했다.

臨時議長으로 추대된 禹寅燮전임회장과 6명의 전형위원들의 협의 끝에 趙회장 후임으로 閔丙晙동문이 신임회장에 선임됐다.

閔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前任 회장단과 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동문 여러분의 힘을 결집, 가장 훌륭한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94년도 회원명부 補正版이 배포됐으며 改選된 任員陣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 金基玉, 朴鍾世, 朴永姬, 沈明鎬, 崔泰祥, 金城鎭동문 ▲감사 金順玉, 林香淳동문

金회장 김경란양 위문

李世震處長이 金一封 전달

事務處 全職員도 위문금

本會 金在淳 회장은 지난 5월26일 골수암 4기로 투병중인 母校 金京蘭(師大 國語敎育科 4년)양이 입원중인 서울대 병원에 李世震 사무처장을 보내 『조속한 시일내에 완치하여 학업에 전념해 달라』면서 그 가족에게 金一封을 傳達케했다. 또 學友의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김경란 학우 투병지원대책위원회」를 결성, 모금에 나서고 있는 후배 재학생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동문들도 적극적으로 關心을 갖고 참여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總同窓會 事務處에서는 各職員들이 솔선 參與하여 金京蘭양의 快癒를 빈다는 뜻에서 오십삼만 삼천원을 出捐, 李世震 本會 事務處長이 母校를 訪問, 共同對策委 한양인 委員長에게 傳達했다. 또한 同窓會報에서는 5월호 母校消息欄에 金양의 투병현황과 各界同門들의 參與를 바라는 記事를 揭載한 바 있다.

스승의날 行事

家政大서 盛了

家政大同窓會·木蓮會(회장 李仁子)는 지난 5월12일 정오에 팔레스호텔 일식관에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스승에게 꽃을 달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10여명의 스승과 제자가 참석했으며 始終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張明郁선생님이 別世하신 이후로 선생님들을 자주 찾아 뵙지 못한 것이 더욱 마음에 걸렸는데 다행히 이런 자리가 마련돼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반갑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李惠秀 前가정대학장, 金聲連·牟壽美 명예교수등 9명의 恩師에게 감사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한편 同會는 이날 참석하지 못한 母校 在職敎授에 대한 기념품을 미리 전달한 바 있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李種昕학장과 金正均대한치과의사협회장, 手島東일본지부장의 축사가 있었는데 특히 이번 총회에는 申榮均 本會 副會長이 취임후 처음으로 참석, 『齒大同窓會의 발전을 축원하며 모교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金在淳 總同窓會長의 축사를 代讀했다.

이후 회무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94,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심의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 신입회원 99명이 入會하게 됨에 따라 신입회원 환영의 뜻으로 대표인 정민호 동문에게 동창회패를 증정했다.

本報 논설위원 17명으로 대폭 增員

「읽히는 會報」제작에 總力

部數增刷、增面계획등 多角검토

本會 金在淳회장은 지난 5월 16일 同窓會 會則 제14조 및 會報編輯委員會規定 제3조에 의거, 宋鎭赫(65년 文理大卒) 中央日報 수석논설위원을 비롯 13명의 언론계에 종사하는 동문을 同窓會報 편집위원으로 위촉했다.

따라서 現任위원인 金榮國 母校社會大 교수, 金哲洙 法大교수, 孫一根 한국일보理事, 崔靑林 朝鮮日報 編輯局長을 포함 17명을 위원으로 하는 막강한 팀웍을 이루게 되었다.

本會 金在淳회장은 新任 편집위원을 영입하면서 『同窓會報의 質的 向上을 도모하고 紙面을 刷新, 增刷하기 위해 언론계에 종사하는 동문들을 주도하여 補強하게 되었다』면서 『同窓會報는 읽히는 내용과 기다려지는 내용을 게재하여 母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國家발전에도 一翼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孫一根위원

▲金哲洙위원

▲金榮國위원

▲朴世熙위원

▲金昌悅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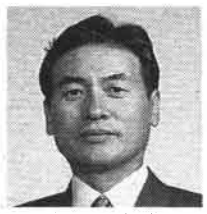
▲崔靑林위원

▲朴應七위원

▲李炯均위원

▲李東和위원

▲洪性萬위원


▲李年憲위원

▲宋鎭赫위원

▲李成俊위원

▲朴紀正위원

▲丘月煥위원

이번에 새로 위촉된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다.

▲金昌悅(58년 法大卒) 放送委員會委員長 ▲朴世熙(59년 文理大卒) 母校自然大교수 ▲李東和(63년 文理大卒) 서울신문理事 ▲李炯均(64년 文理大卒) 프레스센터 專務 ▲朴應七(65년 文理大卒) KBS解說委員 ▲宋鎭赫(65년 文理大卒) 中央日報首席論說委員 ▲李年憲(65년 文理大卒) MBC기획조정실장 ▲洪性萬(67년 文理大卒) 京鄕新聞편집국장 ▲丘月煥(67년 文理大卒) 聯合通信地方局長 ▲朴紀正(68년 文理大卒) 東亞日報 社會部長 ▲李成俊(69년 文理大卒) 한국일보 編輯局長 ▲吳效鎭(71년 文理大卒) SBS編成理事 ▲安炳璨(75년 新大院卒) 時事저널 編輯主幹

한편 本會에서는 編輯委員制를 論說委員制로 名稱을 변경, 運營키로 했다.

▲安炳璨위원

▲吳效鎭위원

定總서 朴亨錫회장 推戴

環大院 單獨건물 확보계획 논의

▲朴亨錫신임회장

環境大學院同窓會(회장 柳元圭)는 지난 27일 서울상록회관에서 94년도 定期總會를 개최,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李相大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2천년대를 준비하며 동창회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金炯國환경대학원장이 축사를 통해 『環大院 발전기금 모금에 협조해 주신 동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빠르면 4~5년내에 환대원이 단독건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창회 활동보고와 결산보고에 이어진 임원개선에서 임기만료된 柳회장의 후임으로 朴亨錫(74년 환대원卒·서울시 재무국장) 부회장이 선임됐다. 신임 朴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동문들의 단합된 힘을 모아 열심히 뛰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일 環境造景學科同窓會長으로 당연직 환대원부회장이 된 鄭京相동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은 신임 朴회장에게 위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환대원 「동창회보」 제25, 26호와 「환경논총」 제31권이 참석동문에게 배포됐다.

恩師에 기념품 증정

行大院 업무등 현안 협의

行大院同窓會(회장 姜敏求)는 지난달 25일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순서로 母校 朴東緖교수(行政刷新委員會委員長)을 초청, 「행정쇄신의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 참석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은 93년도 결산안을 승인하고 常任理事 및 理事를 추가로 선임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이번에 정년퇴임하는 母校敎授 6명에게 증정할 기념품 마련을 위한 代金 3백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또 94년도 제1학기 장학금 4백5만2천2백원을 석사과정에 있는 이형훈동문등 5명에게 지급한 것을 보고했다.

한편 姜회장은 이 자리에서 行政과 政策論叢 제3권 발간을 위해 많은 동문들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同門칼럼 寄稿를 희망하는 동문은 7월31일까지 원고를 同會로 등기송부해 줄 것을 공지했다.

理事會 개최

醫大업무협의

醫科大學同窓會(회장 姜信浩)는 94會期年度 제1차 定期常任理事會에서 決議된 동기회장회의를 지난 5월 2일 하얏트호텔에서 개최했다.

60여명의 상임이사·동기회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동창회 업무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5월15일 테니스大會를 개최키로 결의했으나 雨天으로 다음 해로 연기했다.

醫大 28同期會 졸업20주 계획

醫大28회同期會(회장 吳世汶·한강성신병원)는 최근 동숭동 소재 「진아춘」에서 同期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同會가 올해로 졸업20주년을 맞이한 관계로 그에 따르는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오랜 시간동안 논의한 끝에 오는 8월17일 그 당시 恩師를 초청, 謝恩會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으고 基金을 따로 조성해 母校에 발전기금이나 장학금으로 出捐키로 했다.

原核工科 定總

업무 결산보고

原子核工學科同窓會(회장 表相基)는 최근 감남 「남강」 음식점에서 9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동창회 활동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4년 신임회원들에 대한 환영식과 더불어 前任會長團(梁昌國 前會長, 韓相吉 前總務)의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면서 功勞牌를 전달했다.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95호

海外지부 親睦사업 본궤도 進入

母校에 新刊도서 寄贈계획

네덜란드支部 科基金 1백만원 보내와

지난 5월4일 同窓會 네덜란드支部 林基滿(58년 文理大卒·K.L.I.M社長) 회장이 本會를 방문하여 科學技術硏究基金으로 1백만원과 회원 16명의 회비를 전달했다.

▲林基滿지부장

이날 林회장은 그동안의 활동보고와 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지난 8월 支部 창립이후 동창회 활성화와 모교를 위한 무리없고 실속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다른 支部의 좋은 활동을 본보기로 삼아 동문 상호간의 유대강화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모교를 위해 신간도서·희귀도서를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林회장은 『회원들은 물론 대부분 音大출신인 유학생들이 회보를 밤새도록 읽으며 향수를 달래고 있다』며 각대학 동창회소식과 더불어 다양한 지면활용으로 새로운 소식을 많이 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音樂會열어 基金마련

南加州支部 總會서 任員개선

▲李丙俊지부장

최근 남가주支部 李丙俊(59년 商大卒·부산파이프 아메리카 社長) 회장이 本會를 방문, 支部 소식을 전하는 한편 앞으로의 事業日程을 협의했다.

총회원이 1천8백여명인 同支部는 매년 新年會와 音樂會를 열고 定期總會를 개최해 任員改選을 하고 있다. 골프모임과 가족동반 모임도 수시로 열어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2년마다 支部名簿를 發刊 配布하고 있다. 올 후반기에는 등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母校마크가 새겨진 상품을 준비해 景品으로 사용하거나 基金을 확보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李회장은 『海外의 동문들은 국제화의 선두주자로서 母國에 작은 힘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대학개방을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해외거주 동문들이 母校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同窓會와 母校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同會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무국장: 金性熙(71년 商大卒) ▲부국장: 崔應煥(84년 社會大卒) ▲재무국장: 李鍾度(70년 工大卒) ▲사업국장: 徐世震(66년 音大卒)

「春季골프모임」 계획

뉴욕支部 副賞도 푸짐

同窓會 뉴욕支部는 오는 4일 「總同窓會 金在淳盃 春季골프대회를 개최한다.

뉴욕소재 글로싱어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되는 이날 골프대회는 現代·大宇·鮮京·曉星·韓火·外煥銀·第一銀·商銀·뉴욕골프센터·캠브리지멤버 후원으로 1등상에는 서울왕복 항공권, 홀인원賞에는 94년형 엘란트라 승용차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미네소타 權承霖회장 선임

任員陣개편으로 活性化 다짐

최근 미네소타支部(會長 權承霖·56년 工大卒)는 母校 醫科大學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미네소타大 醫科大學長을 역임한 N.L. Gauet 박사를 초청해 모임을 갖고 그 공로를 치하했다.

Gauet 박사는 1959년부터 61년까지 미네소타大學에서 주관한 서울大再建계획을 추진키위해 母校醫大 수석고문으로 일했으며 아시아 각국의 醫學교육지원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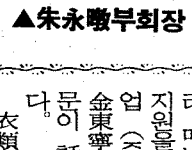
同支部에는 현재 13명의 理事와 1백여명의 동문이 등록되어 있으며 확정된 任員陣은 다음과 같다.

▲副會長=朱永暾(58년 農大卒) ▲總務幹事=任漢慶(67년 文理大卒) ▲財務幹事=南世鉉(71년 工大卒) ▲幹事=金權植(65년 工大卒)

業務協議次 귀국

朱永暾부회장 本會방문

지난 月初 미네소타支部 副會長인 朱永暾(58년 農大卒)、金暈珠(60년 農大卒)동문 내외가 本會를 방문, 同支部의 현황을 설명하고 李世震사무처장과 앞으로의 사업방향들을 논의했다.


▲朱永暾부회장

同會는 총회원수가 1백여명으로 대부분 유학생, 엔지니어,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1월에 新年賀禮會를 개최하고 봄, 가을에 부부동반 야유회를 갖고 있다. 특히 75년에 설립된 韓國人學校의 運營에 적극 참여, 海外子養者들에게 母國을 알리는 한편 많은 혜택도 주고 있다. 앞으로는 자체기금을 확보해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朱동문은 『해외에 있는 우수한 인력이 母國과 母校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海外支部로서 동창회를 도울 일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母校방문 行事

新聞科 동창회

新聞學科同窓會(회장 金東哲·東亞日報 記者)는 지난 5월 5일 모교 기숙사 운동장에서 제4회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명예회원을 포함해 교수, 동문 선후배와 그 가족, 재학생등 1백여명이 참석,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어린이 날」을 맞아 同會는 온가족 보물찾기, 장기자랑 등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 어린이들에게 장난감등 다양한 선물을 여럿별로 제공했다.

또한 변덕스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문 선후배와 재학생이 팀을 이뤄 축구, 배구, 피구, 족구 등 각종 운동경기를 벌여 친목도모와 유대강화에 큰 힘이 됐다.

毅堂學術賞제정 연구지원

金東寧동문 先親遺業기려

평생을 獻血운동에 헌신해온 先親의 뜻을 기려 매년 巨額의 硏究費 지원을 하겠다는 중소기업 (주)한세실업 대표 金東寧(68년 商大卒)동문이 話題에 오르고 있다.

衣類수출업을 하고 있는 金동문은 先親인 毅堂 金冀洪(47년 醫大卒·86년 12월 作故)박사가 지난 67년 韓國獻血協會를 조직, 民間次元에서 헌혈운동을 펴는 등 血液관련 疾患치료에 평생을 바쳐온 뜻을 기려 血液學과 혈액질환등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新進學者들에게 「毅堂學術賞」을 제정, 매년 1만달러의 연구지원금을 희사하겠다고 밝혔다.

金동문은 이런 뜻을 醫協에 문의, 醫協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學術賞」을 제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金동문이 지원코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學者를 선정, 내년 4월부터 施賞키로 했다.

毅堂 金冀洪박사는 47년 母校 醫大를 졸업, 不毛地에 가까왔던 당시의 血液學등 臨床病理學을 전공하고 獻血사업에 앞장 섰으며 특히 漢陽大 부속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76년에는 大韓血液管理協會 初代會長을 맡으면서 治療用혈액 전량을 국내 獻血로 충당케 하는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

홈 커밍데이 성황이뤄

社會福祉科 定總

社會福祉學科同窓會(회장 朴淳國·한국재활재단 국장)는 지난 22일 모교 노천강당옆 버들들에서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同會에서는 매년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격년제로 모교방문의 날 행사와 야유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낙산소식」誌를 1년에 4회 발간하는 등 동창회 산하 각기별 동기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同會의 任員陣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 姜岩求(의료보험연합회 전자계산부장), 崔炳勳(노동부 훈련지도국 과장), 金宗海(성심여대 교수) ▲감사: 鄭炳五(대우증권 역전지점장) ▲총무: 金成漢(서울대 조교)

科別동창회 任員개편 도약의 기회로

定總서 決算·사업보고등 承認

化工科 金泰文회장 선임, 장학금 수여

化學工學科同窓會(회장 張弘圭·大林그룹 부회장)는 지난달 4일 오후7시 역삼동 소재 「반도 아카데미」에서 94년도 춘계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張회장의 인사와 作故한 동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1백14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朴憲烈간사장의 사회로 93·94회계년도 주요사업 결과 및 결산에 대한 보고와 박종득(48회卒)동문에 대한 1백만원의 대여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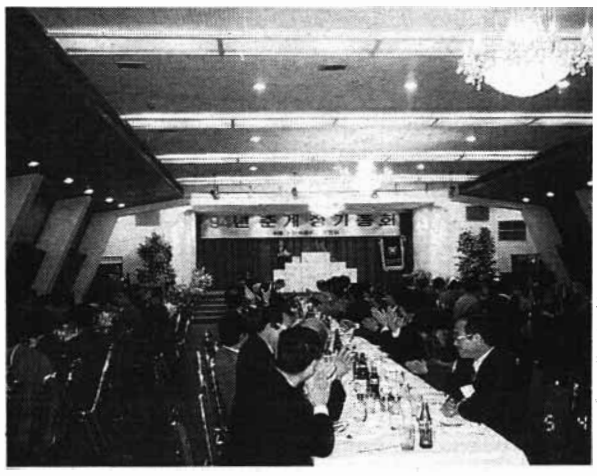
이어진 任員改選에서는 金泰文동문(株) 유공감사)이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선임됐으며 新任會長團에 대한 認准이 있은 후, 徐文濩동문을 幹事長으로 선임하는 한편 新任幹事陣에 대한 認准 및 94·95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安倍昇(京城高工16회卒), 岸田嘉夫(京城高工23회卒), 竹下嘉雄(京城大3회卒)등 일본인 동문이 참석, 자리를 빛냈으며 同會에 찬조금으로 3만엔과 도자기 등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총회가 끝난 후에는 同會가 그간 化工會報, 化工同門消息에 원고를 投稿한 동문들에게 기념품으로 액자를 증정하고 最多 참석자에게 선배들이 준비한 양주를 전달하는 등의 특별순서를 마련해 동문들이 만찬을 함께하며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한편 이날 선임된 新任會長團과 幹事陣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會長團) ▲회장: 金泰文 ▲부회장: 李富燮·沈利澤 ▲감사: 鄭善基·成紀雄 (幹事陣) ▲간사장: 徐文濩 ▲간사: 朴泰鎭·金平一·愼治範·洪武鎬·鄭湖一



▲지난 4일 개최된 化工科 定總

博士학위 취득자에 記念牌

資源工學科 李慶雲회장 추대

資源工學科同窓會(회장 咸貴浩)는 지난달 1일 야유회겸 임원개선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정기총회는 모교 교수회관에서 정오에 시작됐으며 동문가족등 1백10여명이 참석, 예·결산승인과 결과보고후 신임회장으로 李慶雲동문(한국자원연구소 자원개발연구부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또 박사학위를 취득한 10명의 동문에 대한 기념패 증정식과 5백만원의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총회가 끝난후 2부 순서에서는 잔디밭등로 장소를 옮겨 음식을 나눠먹으며 장기자랑등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特별기금案토의

法大15회同期會

法大15회同期會(회장 金東我)는 지난 5월 6일 롯데호텔 벨뷰룸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유대를 강화했다.

작고한 동문에 대한 묵도로 시작된 이날 모임은 동문가족을 포함해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결산보고가 있었다.

또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금모금과 일반회비의 납부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건축전」지원

建築科동창회

建築學科同窓會(회장 辛鉉楫)는 지난 5월4일 오후7시 호암교수회관에서 理事會를 개최했다.

李光魯명예교수등 18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매년 9월에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하는 학과행사인 「건축전」에 동창회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卒業 30주년 기념행사 푸짐

商大18회同期會 3백여명 참석

商大18회同期會(회장 崔昌杰·고려아연회장)는 지난달 21일 母校 교수회의실에서 졸업30주년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부동반으로 3백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으며 참석한 동문 모두에게 母校 백지문양을 금으로 새긴 은수저가 기념품으로 전달됐다. 또 이날 모신 19분의 恩師에게 삼은품을 증정하는 한편 母校 경영대와 사회대측에도 기념품을 전달했다.

2부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1등 당첨자에게 하와이 4박5일간 여행권을 선물하는 등 同會에서 준비한 경품과 여흥순서가 참석자들의 흥을 돋구었으며 동문들은 음식을 함께 들며 화창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3부는 참석동문들이 가장 인상 깊어 했던 순서로 30주년을 기념하고 남은 30여년의 인생을 뜻깊게 살아가자는 의미로 30개의 촛불을 밝히고 진행된 촛불의식이었는데 그 전의 들뜬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진지하고 엄숙하게 진행됐다.

응원가와 교가제창을 끝으로 이번 행사는 마무리됐지만 同會는 올 연말에 이번 행사때 찍은 사진을 포함한 동문과 그 가족들의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 예정이며 졸업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을 발전기금이나 장학금으로 출연할 계획도 갖고 있다.

會長에 元漢榮동문

商大14회 단합과시

商大14회同期會(회장 許在敬)는 지난 5월6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친목을 도모했다.

동창회 활동 및 결산보고에 이어진 임원개선에서는 許회장의 후임에 元漢榮(운곡엔터프라이즈 사장)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이날 새로 선임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 李俊容(동아제분 사장), 權寧大(오리엔트해운 사장)동문 ▲감사: 金時烈(외환리스 부사장)동문 ▲총무: 金盛斗(세방전지 사장)동문

女性동문 會長으로

齒大15회 金京愛동문 선출

齒大15회同期會(회장 李炳奎·평화치과원장)는 지난달 2일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에서 9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임원개선을 겸해 열렸으며 金京愛동문(김경애치과)이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임됐다.

또한 부회장에 方孝淑동문(방치과), 총무에 李順得동문(성심치과)이 선임되는등 차기 임원진이 여성동기생들로 구성돼 이채를 띠었으며 李炳奎 전임회장은 감사에 추대됐다.

理事·幹事회의

機工科 동창회

機械工學科同窓會(회장 張翼龍·西光會長)는 지난 5월6일 오후 6시30분 호암교수회관에서 이사회 및 기별간사회를 개최했다.

45명의 任員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李長茂동문(67년卒·母校敎授)의 정밀기계연구소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었으며 「자랑스런 공대동문상」후보자 추천은 同科 출신 동문이 작년에 수상한 관계로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제2차 이사회 및 기별간사회를 오는 9월30일(金)에 열기로 하고 定期總會는 오는 10월30(日)에 개최키로 했다.

畜産科 定總

1백50명참석

畜産學科同窓會(회장 金振儀)는 지난 14일 수원캠퍼스 종합관에서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농생대 학생들로 구성된 두레 풍물패의 놀이와 동창회의 발전 및 모든 동문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告祀에 이어진 총회에서는 경과·결산보고 및 예산심의가 있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 선거에서 모두 유임되도록 결정됐다.

총회를 마친 후 동문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자랑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商大32회 모임

商大32회同期會(회장 金殷相)는 지난 16일 압구정 「섭매네」한식집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입학 20주년을 기념해 가을에 모교에서 정기총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95호

느티나무의 廣場

門門대통령에 바란다

一孫

根(本報논설위원·한국일보理事)

萬物博士보다 人事의 再點檢이 긴요한 시기

國政운영엔 당당하게, 正統性으로 극복해야

——당초 스케줄따라 蹉跌없는 靑寫眞 펼쳐주길…

大統領은 萬物博士가 아니다。대통령이 자기 전문분야도 아닌데 모두 다 아는체 하는 것도 꼴불견이다。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은 어느 한 부문의 전문가이기 보다는 모든 사안을 올바르게 判別 決斷할 수 있는 건강한 상식과 능력을 갖춘 편이 더 낫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이란 한 사람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될 수 없고, 또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는 그 사고방식에 있어서 자칫하면 편협되고 폐쇄적일 수 있다。이 점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이나 조언을 받아들이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군사정부 시절에 일부의 시각은 무엇인지 다 아는체 해야 대통령 자격이 있는줄 알았던것 같다。따라서 공개적으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뒷구멍에서 몇몇 側近의 말만 듣고 척척박사인양 下向式 명령의 남발을 능사로 삼았다。제대로 衆智가 수렴되지도 없고 枝葉的인 일에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자기 스스로 資質과 正統性에 自信이 없다고 느낀데서 온 하나의 콤플렉스 때문이었다고 본 것이 옳을 것이다。그렇다고 그들의 治績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몇년동안 비밀課外(?)를 받으며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강운데 얼마쯤 지나면 제법 대통령의 관록도 붙고 기량이 늘기도 했다。그러나 정신차리고 골몰히 생각해 보자。이 나라 國政이 대통령 연습장이고, 국민 모두가 실험용 「모르모트」란 말인가! 몇년동안 이 짓을 치르고 나면 이 나라 國政과 백성은 멍이 들고 생채기가 생겨 차질이 없고 지체없는 「스케줄」대로의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할 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金대통령도 임기중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가 금년이라며 民自黨 전당대회까지 연기하면서 일롬 해 보자고 하지 않았던가。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 괄호할 만한 일을 하기는 커녕 UR사태이후 연발하는 각종 파동, 사건의 뒷수습에 쩔쩔매는 느낌이다。

문제는 金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듯이 가장 基盤的인 작업으로서 모든 스케줄의 零順位에 마크됐어야할 「人事」가 과연 제 자리를 잡았는냐는 점이다。金대통령이 취임 직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同窓會 主催의 當選축하모임에서 주문한 대로 이 同窓會報를 통해 「苦言」을 한다면 자질구레한 지적을 할 필요없이 이 「人事」의 食?)을 필한 셈이다。그런고 보면 영국의 처칠수상도 우연히 똑같은 27세에 保守黨 의원으로 정계에 첫 진출하여 32세에 일시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50세(1924년)에 다시 보수당으로 되돌아온 뒤 60년 이상을 현역정치인으로서의 자리를 당당히 지켰다。

金대통령의 경우도 그 품모와 경륜에 있어서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이제 차질없고 지체없는 「스케줄」대로의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할 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金대통령도 임기중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가 금년이라며 民自黨 전당대회까지 연기하면서 일롬 해 보자고 하지 않았던가。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 괄호할 만한 일을 하기는 커녕 UR사태이후 연발하는 각종 再點檢을 갈히 권하고 싶다。일할시간은 별로 없는데, 서둘러 굴러 가야 할 수레의 톱니바퀴는 잘 맞아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敏銳修理工은 엔진소리를 귀로만 듣는게 아니라 감으로 듣기도 한다。이번에 金대통령은 政·財界 元老를 비롯하여 그동안 집권층과 소원했던 舊與圈인사에 이르기까지 각계의 많은 사람을 만났다。이를 두고 「구여권의 감싸안기」 「5·6共의 再登用」 「國政운영 스타일의 변화」 등, 제각기 我田引水격으로 관측하고 있다。이에 개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朴寬用실장의 설명처럼 金대통령의 총괄적인 국정파악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이제 전부적인 차원에서의 의견수렴을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싶다。그 말대로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전부적인 차원」에서의 비틀림없는 發進을 위해 다시 한번 原點에 서서 스탭의 「라인업」을 챙겨 봐야 한다。熟練醫가 수술에 앞서 「히포크라테스」의 宣誓를 다시 챙겨 읽어 보는 姿勢로!

情報산업의 현주소…徐廷旭동문

(베)(테)(랑)(을)(찾)(아)

通信기술 國際化로 수출 尖兵役돼

"産學협동체제 갖춰 경쟁력 高揚을"

難關에 부딪칠 때마다 偉大한 解決士로 나타나는 일 中毒者, 밤낮 구별없이 연구분위기속에서 긴장의 연속으로 어떤 일일는 해내는 강인한 精神의 所有者로 알려진 徐廷旭(57년 工大卒)동문。

徐동문의 직함은 韓國移動通信技術開發事業管理團長이다。그의 功績을 새삼 들출 필요가 없겠으나 「TDX(Time Devision Exchange)사람들」 강운데 굳이 한사람을 뽑으라면 단연 徐동문을 꼽을 수 밖에 없는 人物이다。한국통신내에 설치한 全電子交換器事業團 단장을 맡아 TDX연구개발을 진두지휘하면서 그 성능시험과 품질관리 보증에까지 全力投球하여 성공시킨 숨한 逸話의 主人公이기 때문이다。

그의 최대 강점은 한번 맡은 업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열적으로 처리한다는 그 意志와 사명감이다。특히 徐동문의 일에 대한 哲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알려져 있다。

그가 연구원을 독려할때 자주 쓰는 말로 『죽으면 다 썩을 몸인데 아껴서 무엇을 할 것이냐』다。그러면서 밤낮가리지 않을 뿐더러 휴일마저 연구원들을 진두지휘하는 지독한일벌레로 定評이 나 있을 정도이다。

現在 徐동문이 이룩한 TDX는 지금까지 국내과학기술연구개발사상 최고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또한 95년말까지는 國産디지털장비가 商品으로 나와야 하고 만약 이의 實行에 차질이 생기면 移動電話 수요적체가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될 상황이어서 그를 사업단장으로 모셔(?)서 진두지휘토록 한 것이다。

徐동문팀이 순수한 國內기술로 불과 10여년만에 만들어 낸 電子交換器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이 결과로 TDX는 輸出主力商品으로 東南亞·中東·東歐圈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으며 中國과 러시아에까지 활발한 進出을 도모하고 있다。

그의 硏究팀들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符號分割多重接觸(CDMA=Code Devision Multiple Access)방식의 디지털 移動通信기술이 계획대로 성공하면 情報산업의 꽃인 通信기술의 國際化는 한발 다가설 것이다。

徐동문은 情報化社會에서 살아남기 爲한 세가지 要諦를 이렇게 지적했다。

① 産學協同을 時急히 이룩해야 한다。그동안 量的인 증가는 있었으나 質的인 면에선 함량미달이므로 母校에서 專門교육에 重點을 두고 大學과 産業體가 共同課題로 硏究테마에 充實해야 할 것이다。

② 科學의 生活化 및 實用性 있는 硏究가 擴散돼야 한다。특히 멀티미디어를 보편화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③ 易地思之의 思考로 철저한 프로根性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원장을 역임한 徐동문은 電波通信技術開發推進協 議長직도 맡고 있으나 大學에서 講座를 맡아 연구에 전념하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大를 빛낸 사람들

母校에서 學業을 硏修, 각 분야에서 서울大를 빛낸 同門들을 소개하고자 이 欄이 마련됐다. 登場하는 同門이 많을수록 우리의 未來는 밝아질 것이다.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란다. (편집자)

世界的 테너로 名聲 떨쳐

金 辛 煥
(52년 文理大入·시립오페라단장)

마음씨는 백만장자요 오페라라 보임의 유명한 아리아 「그대의 찬 손의 한 대목이다. 嶺南大學校 音樂大學 學長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특별시립오페라단 團長을 맡고 있는 金辛煥음악은 사실 母校 文理大 生物學科에 입학했었다. 自然科學徒였던 그가 다 늦게 音樂徒로 변신하면는 그 자신이 이런한 예술의 매력을 잊지 못했던 점과 부친으로부터 받은 영향때문이었다.

유명한 生物學者였던 부친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런 이유로 음악과 늘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金辛煥은 점점 전공보다 음악에 마음을 두게 됐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음악콩쿨에 출연, 입상을 하게 됐고 아예 그 길로 돌아섰다. 하지만 부친은 자신의 뒤를 잇지 않겠다는 자식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학중에 부친의 타계소식을 듣고 방황하는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준 日本人 유학 공급했다 지나치게 理性的인 프랑스 음악보다는 感性을 중시하는 이탈리아 음악이 자신의 음악적인 완성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 그곳으로 옮겨 보격적인 음악코스를 시작했다.

金辛煥이 이탈리아에서 유학하던 때는 50년대로 매우 궁핍한 시절이었다. 따라서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흔치 않아 그 당시 유학생들은 많은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이때 金辛煥을 주축으로 유학생들이 모임을 결성, 서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場을 마련했다. 『그 덕에 지금도 그곳 유학생들의 代父노릇을 하고 있다』는 金辛煥은 음악가에 대한 헌신적인 지원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 93년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金辛煥이 音樂家로서 걸어온 길은 매우 화려하다. 파리예술극, 벨칸영극음악콩쿨등 수많은 콩쿨에서 1위에 입상했고 이탈리아 벨리니 금상, 밀라노지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또 태랜만의 유한수나뇨의 세계 최초 주역 독창자로 무대에 선 한편 이탈리아 스카라 오페라 극장과 까리에리 국립오페라극장등에서 동양인 남성으로선 최초로 테너 솔리스트로 활약, 91년에 브라질상파울로 모짜르테움 예술대학 명예음악박사학위를 받았다.

生物전공서 聲樂家로 변신

각종콩쿨서 入賞·오페라團 창단

유럽서 음악공부 一躍 유명해져

92년엔 우리 공연의 소재로 러시아 볼쇼이가극장 초청공연을 해, 큰 호평을 받은 등 독구권을 비롯한 전세계에 한국을 알리는데도 일조를 담당, 한국음악펜클럽장, 서울특별시문화훈장, 한국가곡예술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이탈리아 벨리니 국제음악콩쿨 심사위원에 추대되는등 오히려 외국에서 더 잘 알려진 金辛煥은 세종문화회관 개관기념 독창회를 계기로 귀국, 호암아트홀 개관기념공연, 일본황실초청 독창회를 통해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시립오페라단을 창설한 후 리골렛또, 아이다, 시집 간는 날등 오페라 작품의 예술총감독을 맡아 공연한 바 있다.

『서울시립오페라단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고유의 소재를 발굴, 재조명해 세계무대로 진출, 국제화를 꾀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 감사를 초빙하는 등 단원들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자유롭게 현지언어로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단는 金辛煥은 요즈음 서울定都6백년을 기념해 공연될 예정인 가극 「춘향전」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氣」라는 이름의 재산

韓 雲 史 (49년 文理大入·放送作家)

서울大同門에게 告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며 어떤 일을 하며 산는지 말해 드리죠。 난는 시인입니다。 꼬파 이상의 나라, 낙원에 산는 기분, 大學후배를 만나면 무엇인가 주고 싶다。 돈이 아니라 무엇인가 살아나가는데 보탬이 될 이야기라도 해 주고싶다。 내 자신이 세계를 가지고 있고, 크나작으나 다 城主다。 엄청나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명성을 날린는 것을 보면 내 일처럼 흐뭇하다。

원기왕성한 40대 후배들은 인생의 길이에 대하여 그 끝을 의식하지 않는 연배다。 몸을 움을 솟구치는 어떤 의욕에서 삶의 보람을 느낄 기회가 창궐로 많다。 성취욕을 충족시킬때 50대 후배들의 수는 꽤 많을 것이다。 人才소리를 들을만큼 자기 전문분야에서 핵심적 존재가 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되어가는 묘미를 맛보게 마련이다。 그들이 의식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야말로 國力의 實體다。

그 나이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 참고가 되게 말이다。

후배란 여러가지 층이 있다。 70을 넘은 나의 눈에는 우선 同시대를 살아온 소수의 동료들이 눈에 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이다。 신념이다。 氣 I+?

30대에서 그 氣는 튼튼하게 굳어져야 한다。 만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판단을 한는데 거의 오차가 없을 것이라는 自信感。 비굴을 배제하고 쑥쑥 앞으로 나가는 기백。

그것은 20대에 뿌리를 내린 것이라야 된다。 왕성한 인생의 계단을 한단계씩 올라가고 있단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성숙해 지는 것이다。

이 무렵에 가장 중요한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힘은 앙으로 가는 원동력이다。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서울大人은 國力의 實體

方向설정 뚜렷이, 철저한 自己관리 필요

自我完成위해 加一層의 努力을

眞理가 무엇이냐。

대학에 들어오기전부터 출세니 명예니 돈따위보다도 인생의 의미를 꿰뚫어 보려는 고뇌의 나날。 어느 때는 절망하고 어느 때는 야망에 차고, 어느 때는 증오를 생각하고, 어느 때는 세상에 호령하고, 그런 반복속에서 자기가 가야할 방향과 길을 찾으려는 노력。

인생의 기초작업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좋다。 그 기초작업은 광활하게 아주 튼튼하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얼마든지 높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문명사회란는 이름 아래 모든 분야에서, 세분화된 어떤 구석에, 마치 기계의 한 부품처럼 속 틀어박혀 음짝달싹을 못한는 무수한 젊은이들。 엄청나게 세상은 복잡다단해지고, 뜨스한 인간성은 메말라 쥐만 쫓고 사람은 안보는 풍조。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외치는 사이 마냥 황폐해져만 가는 우리들 특유의 구수한 인간생활。

무수한 차가 거리를 질주한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뛴다。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후배들이 끼어있다。

서울大 출신이라는 프라이드는 어느 시대고 대단한 것이었다。 또 대단한 것이라야만 했다。 21만명의 동문들, 「氣」를 잃지 말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어디서 어떠한 일과 마주치더라도。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95호

모임探訪

哲學科同窓會

70년創立 협동심 強한 파워그룹

한국知性을 자부하며 유유자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哲學을 專攻으로 하는 사람을 괴짜로 보거나 李憲祖 회장(金星社 副會長)의 말처럼 현실의 변화에는 눈 돌리지 않고 그저 서재에 앉아서 사색에 몰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母校 哲學科를 나온 同會 회원들은 현실적인 視覺과 姿勢로써 세계의 변화를 直視하고 명석한 분석력으로 한국의 知性들에게 길을 제시한다는 긍지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철학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哲學科주최 金泳三대통령 취임 축하연

지금 한국사회는 격심한 사회 변혁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으나 미래에 대한 대안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 전통사회의 붕괴, 악성범죄의 빈발, 가족의 해체 및 윤리도덕의 황폐화등 경제성장의 그늘에 묻혀있던 각종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나 그것을 제어하고 관리할 구체적 기준이 확립돼 있질 못하며 자신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한다. 아마도 이런 합문적인 성격이 대통령을 나올 수 있게 했던 배경이 된 것 같다. 같은 곳에서 같은 학문을 공부했던 동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은 이들 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중인 후배들에게도 母校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한층 깊게 해주는 계기였다.

초창기 동문들은 6·25를 겪으면서 부산 대신동 산 및 임시천막 교실에서 책도 없이 프린트로 교재를 만들어가며 어렵게 공부했다. 동숭동 문리대 건물에서 공부한 戰後세대도 생활고로 힘겨운건 마찬가지였지만 朴鍾鴻, 高亨坤 교수를 恩師로 모시고 都俊鎬동문의 말처럼 최고 학부생이면서 진리에 가장 가까운 학문을 공부한다는 조금은 우쭐하고 때로는 기고만장한 기분으로 학창시절을 보냈다. 물론 지금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 우주와 세계를 논하며 지샌 적도 많았다.

그러다 同科출신 동문들은 1970년대에 이르러 각자의 사회적인 위치가 확립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에 기여할 때가 됐다는 생각으로 同窓會를 창립했고 지금까지 母校발전과 동문간의 유대, 친목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총회원수는 1천여명으로 李憲祖 회장과 李啓益, 蘇光熙 부회장이 주축이 돼 同會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학과의 교육환경을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뜻을 모아 哲學科發展委員會를 창립해 학과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 현재 1천만원이 적립돼 있으며 학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謝恩會와 회원들의 慶弔事時에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同會의 특징은 회칙이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회칙을 따로 만들면 동창들의 모임이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조직화돼 동문들간의 친목을 저해한다는 철학과 출신다운 생각때문이다.

회원들의 대부분은 敎職에 있거나 언론기관에 奉職하고 있고 매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마다 회원명부를 발간하는 한편 1년에 2번 「필로소피아」란는 소식지를 발행해 회원들의 학창시절 회상기등의 寄稿와 動靜을 실어 배포하고 있다.

工大纖維工學科

섬유산업 專門人 배출 寄與度 높아
新素材 개발로 尖端기술 先導
在學生 전원 奬學生化 계획도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그 위치가 수출에서 세계 제3위일 정도로 산업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거기에 밤낮없이 母校 纖維高分子工學科는 지난 40여년간 섬유공업교육 및 연구를 先導하고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등 많은 공헌을 해왔다.

同科는 한국섬유공업의 育成이 산업화 사회건설의 礎石이라는 국가적 요청에 따라 1946년 母校 창립 當時 工大 9개학과 중 하나로 설립됐다. 초창기였던 일제말기에 당시 동문들은 京城工業專門學校 紡織科 학생으로서 동숭동에 있었던 특유의 특별 校舍에서 일본인 학생들과 공부했고 해방이 되자 母校가 國立서울大學校로 改編, 다시 新孔德에 있는 舊京城帝國大學 理工學部자리로 이전한 후에야 본격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당시 恩師로는 이미 故人이 된 金理兆, 金汝尙, 禹範植교수와 金魯洙교수를 들 수 있다.

이후 6·25와 4·19등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학과명칭도 紡織學科에서 纖維工學科로, 近年에 纖維高分子工學科로 바뀌었다. 이것은 섬유산업이 과거 의류를 만드는 것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新素材 개발 등 과학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그 역할범위가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개최된 섬유공학과 정기총회

1950년대에 와서 수백명의 동창들이 동숭동 강당을 가득 메우고 同窓會 창립총회를 개최해 초대회장에 故 洪貞模동문을 선임했으며 부총리를 역임한 故 元容奭동문도 창립멤버의 한 명이었다. 同會는 이처럼 오랜 역사만큼 회원의 층이 두텁다. 따라서 사회적인 영향권의 범위가 매우 넓어 學科와의 연계나 재학생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총 1천9백여명의 회원들 대부분은 기업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경영자로서 상호협조도 잘하는 편이라 동숭모임을 많이 조직했다. 그 중 골프모임인 목화회와 등산모임은 이들의 자랑거리로 30여명의 등산 동숭회 회원들은 30여년을 한결같이 매주 같은 코스로 산행을 하고 있다.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 2년마다 임원개선을 하는 同會는 두 달마다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으며 科消息과 회원들의 動靜을 알리는 「섬유소식」을 발행, 배포하고 회원들의 사진이 게재된 명부는 2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또 孔錫鵬, 白鶴基 전임회장이 주축이 돼 「섬유공학과 재학생 全員 奬學生化」를 목표로 설정하고 모금에 진력한 결과 현재 기금으로 7천여만원이 적립된 상태이다. 이 기금은 동문들의 慶弔事와 學科지원에 사용되며 1991년에는 金魯洙교수 정년퇴임 행사를 치르면서 母校에 발전기금을 出捐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과 재학생 지원, 친목도모를 위한 공동의 場을 마련키위해 孫海東동문이 회장인 「동창회개발기획위원회」를 창립, 조직적으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과 母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회생과 봉사정신으로 同會를 이끌고 있는 任員陣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회장: 慶世浩(株 가희 대표이사)동문 ▲고문: 崔光俊, 崔錫環, 孔錫鵬, 李在坤, 朴成陽동문 ▲부회장: 金鎭杓, 田文輝, 成基榮, 任宗泰, 李承東동문 ▲이사: 權斗燮, 尹文燮, 朴鍾仁, 趙福濟, 趙炳祐, 朱秀一, 徐敏錫, 金大雄, 朴信河, 李重成, 張仁甲, 金浩大, 申一浩, 崔淵동문 ▲감사: 張哲植, 權斗燮동문 ▲상임감사: 姜泰晋, 金桂東동문.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95호

근 모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出捐했다.

▲朴魯壽(52년 美大卒·藝術院會員·本會理事)=최근 5·16민족상 학예부문 수상자로 選定됐다.

▲姜信浩(52년 醫大卒·東亞製藥會長·醫大同窓會長)=지난달 7일 제22회 「보건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金石年(52년 美大·(株)宣聯會長)=지난달 14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국제광고협회(IAA) 세계평의회에서 아시안으로는 최초로 개인전을 개최.

▲朴孟浩(57년 文理大卒·民音社 社長·本會理事)=최근 회갑을 맞아 자신이 걸어온 책과의 한평생을 정리하는 의미로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기획, 出刊했다.

▲尹鍾爀(57년 文理大卒·弘益大教授·本會理事)=최근 한국번역가협회 상임고문으로 推戴됐다.

▲黃迪仁(57년 法大卒·母校教授)=최근 독일 교육전문가들을 초청, 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과 독일에서의 종교와 교육」을 주제로 韓·獨교육제도비교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미나자료집을 出刊.

▲金昌達(57년 商大卒·韓國綜合技術金融社長·本會理事)=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選任.

▲梁承圭(60년 法大卒·母校教授)=지난달 7일 대치동 샤제리제패션마트내 뷔페홀에서 회갑기념문집 「현대상법학의 과제와 전망」의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柳聖熙(60년 醫大卒·東서울病院長·本會理事)=최근 대한의학협회 총회에서 제29대 의협회장에 被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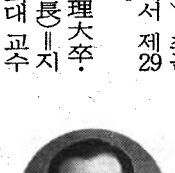
▲康賢斗(61년 文理大卒·母校言論情報研究所長)=지난달 12일 모교 사회대 교수회의실에서 한국개발원과 공동으로 「현대중국방송의 이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金炳翼(61년 文理大卒·文學과 知性社 社長)=6월 3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한국국제경영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에 選任.

▲金亨圭(64년 音大卒·漢陽大教授)=지난달 3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英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에서 피아노 협연했다.

▲洪起倉(64년 文理大卒·母校教授)=최근 열린 한국세익스피어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選任.

▲李承義(64년 美大卒·이씨클럽旅行社代表理事·本會理事)=최근 사무실을 강남구 신사동 614의2 본경빌딩 3층으로 이전. 전화 512-0006.



▲李善浩(64년 商大卒·韓國輸出入銀行理事)=지난달 6일 한국수출입은행 이사에 選任.

▲梁喆學(65년 文理大卒·母校教授)=최근 세계 최초로 만능과 영지에 항암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하는데 근 개최된 국제언론인협회 한국위원회 이사회에서 理事로 選任.

▲洪錫炫(72년 工大卒·中央日報社 社長·本會副會長)=최

▲鄭夢準(75년 商大卒·國會議員)=최근 대한축구협회장으로서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대륙 부회장에 被選.

▲李性熙(78년 經營大卒·前現代電子部長)=최근 현대전자(株) 이사로 昇進.

▲池範夏(78년 經營大卒·前現代電子部長)=최근 현대전자(株) 이사로 昇進.

訃音

▲沈明輔(58년 法大卒·國會議員·本會理事)=지난달 24일 모교 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9세.

沈동문은 한국일보 기자로 출발,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80년 民正黨창당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4選을 지냈다.

장례는 26일 국회장으로 치러졌으며 장지는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선영이다.

*송선용군(91년 藥大卒) 입행수양=6월12일 12시 30분.

*홍현석군(91년 農大卒) 정혜선양=6월12일 14시.

*조형진군(89년 工大卒) 김정민양=6월18일 14시.

*소영찬군(89년 工大卒) 정은아양=6월18일 15시 30분.

*이원영군(85년 社會大卒) 채은아양=6월25일 12시 30분.

發展基金 常任理事 郭秀一교수

同門을 찾아서

『發展基金은 우수한 研究人力의 확보와 研究活動 지원을 통해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학문의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金環東상임이사의 후임으로 財團法人 서울大發展基金 常任理事에 취임한 郭秀一(63년 商大卒·經營大교수·本會 副會長) 교수는 『서울大學校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 그것은 결국 민족의 앞날에 투자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요즈음 학부 6시간, 대학원 3시간의 강의를 하며 발전기금 모금을 營大 학장보와 經營情報研究所長을 역임했으며 이사를 맡고 있다.

郭동문은 『금년의 60억원을 포함해 발전기금 현재 모금액이 5백억원에 이른다』며 『1천억원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각계 동문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發展基金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첫째, 연구기능의 확대를 통해 교육수준을 향상함으로써 母校가 大學院중심대학으로 발전하는 일환으로 국내 최초의 大學院 寄宿舍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15평형 2이다. 本會의 崔主鎬 前會長도 기숙사 1개棟 기증을 약정한 바 있다.

둘째, 碩座敎授制度를 통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 전문적 분야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산학협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코자 금년내 1구좌 5억원씩 20구좌를 계획하고 있다.

세째, 開校 50周年 記念館의 설립에 필요한 기금 1백억원을 충당하고자 모교 全科, 全期 동문들에게 모금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郭동문은 『단시일내 현황을 파악해 총동창회와 협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發展基金은 보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유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학술연구, 장학사업, 도서구입, 연구기자재 및 설비개선, 후생복지시설확충 등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經營政策論」「經營統計學」「經營情報論」「우리 經濟 어디로 가고 있나」 등의 저서활동 및 자유경제 출판문화상, 국제중소기업학회 최우수연사상을 수상하기도 한 郭동문은 『本會 副會長으로서 모교와 동창회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며 발전기금 모금에 가일층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매일 1.8㎞ 조깅으로 아침을 여는 郭동문은 부인 崔淸圭여사와의 사이에 1남2녀(영훈, 상희, 상진)를 두고 있다.

1천억 募金계획 절반을 겨우 넘겨
各界동문 협조면 目標額달성 무난
"母校발전은 民族將來에 투자하는 것"

韓國經營科學會, 生産管理學會, 中小企業學會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每日經濟新聞 非常任 論說委員, 韓國經營情報學會 회장, KBS 백40세대로 이뤄진 기숙사 6개棟중 나산그룹 安秉均회장이 40억원을 출연해 2개棟을, 모교가 1개棟을 지원, 근간에 기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玄勝鍾(43년 法大卒·前國務總理)=지난달 10일 열린 고려대 법인인 고려중앙학원 임시이사회에서 理事에 選任됐다。

▲吳應瑞(47년 齒大卒·前齒協서울支部會長)=최근 美國 지구환경대학원(EKU)으로부터 명예환경박사학위를 수여받고 한국총장에 任命됐다。

▲李丙昊(48년 文理大卒·亞太辯護士協會長)=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중국인에 의해 「이병호와 중국인」이라는 제목의 人物評傳이 出刊됐다。

▲金聖悅(48년 文理大卒·東亞日報顧問)=지난달 12일 국제언론인협회 한국위원회 이사회에서 종신이사로 推戴。

▲張禮準(49년 商大卒·三新올스테이트生命保險(株)會長·商大同窓會長)=최근 전직 건설부장관으로 구성된 대한건설진흥회 제10대 회장에 被選。

▲趙淳(49년 商大卒·前副總理·本會理事)=최근 설립 2백주년 기념으로 美보든칼리지가 수여하는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邊衡尹(51년 商大卒·母校名譽敎授)=최근 정책연구 및 실천을 위해 창립된 「새사회연대」의 이사장에 就任。

▲白樂晥(51년 醫大卒·仁濟大學校總長·本會副

차기 세계회장에 被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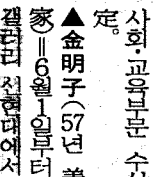
▲李澧鍾(55년 文理大卒·서울産業大學敎授)=최근 일본 노동성과 아세아지역 진로지도학회 공동주체로 열린 「경제발전과 학생진로지도」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 참석, 주제를 발표。

▲鄭漢祥(55년 法大卒·釜山日報社 社長)=최근 열린 국제언론인협회 한국위원회 이사회에서 이사에 選任。

▲金相仁(55년 醫大卒·母校名譽敎授·本會理事)=최근 대한적십자사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의료혈액담당 부총재에 選任。

▲盧寬澤(55년 醫大卒·前서울大病院長·本會理事)=지난달 4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제2회 「中外博愛賞」을 受賞。

▲申榮均(55년 齒大卒·韓國藝術文化團體總聯合會長·本會副會長)=최근 인천 송도 비치호텔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자립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제11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



▲韓斗鎭(56년 醫大卒·韓國病院院長)=최근 서울 여의도 대한생명 63빌딩에서 열린 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27대 회장으로 留任。

▲劉東洙(56년 齒大卒·母校敎授)=최근 5·16민족상 사회·교육부문 수상자로 選定。

▲金明子(57년 美大卒·畵家)=6월1일부터 12일까지 갤러리 선형대에서 일곱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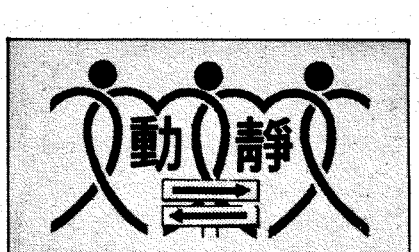
개발금융기구 연합회」 회장으로서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열린 제39차 이사회 및 제17차 연차총회에 참석。

▲林漢鍾(57년 醫大卒·高麗大敎授·本會理事)=지난달 6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신임회장에 推戴。

▲李康爀(58년 法大卒·韓國外國語大敎授)=지난달 14일 거행된 美플리노이주 노스파크大 졸업식에서 양교간 학술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李康煥(58년 法大卒·生命保險協會長·本會理事)=지난달 3일 국내보험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보험협회로부터 보험문화상을 受賞。

▲李金器(59년 藥大卒·前一東製藥社長·本會理事)=최근 일동제약 대표이사 회장에 就任。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3回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吳世哲(60년 工大卒·(株)서울엔지니어링社長·本會理事)=최근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제4회 「인천시 산업평화 대상」(개인부문)을 受賞。

▲柳莊熙(63년 商大卒·對外經濟政策研究院長·本會理事)=최근 美워싱턴에서 열린 「韓·美과학기술포럼」과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의

제5회 「八峰비평가문학상」을 受賞했다。수상평론집은 「숨은 진실과 문학」(문학과지성사刊)。

▲李相喆(61년 齒大卒·慶熙大敎授)=최근 롯데호텔에서 열린 삐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한국회의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제4회 학술상을 受賞。

▲崔富昊(61년 齒大卒·慶熙大敎授)=최근 삐에르 포샤르 아카데미(PFA)한국회의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신임회장에 選任。

▲黃仁政(61년 行大院卒·韓國開發硏究院長·本會理事)=최근 독일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독일경제통합4주년의 평가와 한반도가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張潤宇(62년 美大卒·誠信女大敎授·本會理事)=6월에 개관되는 전쟁기념관에 전시할 대형부조조형물 5작품을 제작했다。

▲孫根碩(63년 法大卒·前浦鐵副社長)=최근 포철 산하 「포스코경영연구소」 법인의 대표이사 사장에 選任。

▲金裕(65년 法大卒·前韓美銀常務·本會理事)=지난달 13일 열린 한미리스 주총과 이사회에서 한미은행 부사장에 選任。

▲柳健(65년 法大卒·前韓國電算社長)=지난달 10일 열린 (주)교보문고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選任。

▲金明子(66년 文理大卒·淑明女大敎授)=최근 제27회 대한미국 과학기술상 진흥상을 受賞。

▲尹正一(66년 師大卒·母校敎授)=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으로서 지난달 21일 모교 사범대학에서 제7차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金旭生(67년 農大卒·前韓國生産性本部 常務理事)=최근 한국생산성본부 산하 한국기업상담(株) 부사장에 選任。

▲韓信赫(67년 商大卒·前東部産業副社長)=지난달 2일 동부산업 대표이사 사장으로 昇進。

▲辛在哲(70년 工大卒·韓國IBM首席專務理事)=지난달 9일 IBM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책임자에 就任。

▲閔相基(70년 商大卒·母校敎授·本會理事)=최근 모교 경영대학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국제경영학회 정총에서 제6대 회장에 被選。

▲張英一(70년 齒大卒·母校敎授)=최근 서울워커힐호텔서 열린 대한치과교정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趙東成(71년 商大卒·母校敎授)=최근 모교 경영대학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국제경영학회 정총에서 제6대 회장에 被選。

▲吳世榮(65년 文理大卒·母校敎授·詩人)=최근 신작시집 「어리석은 헤겔」(고려원刊)을 出刊。

▲任孝宰(65년 文理大卒·母校敎授)=최근 忠南大 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신석기 고고학 연구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選任。

▲許京旭(78년 經營大卒·前財務部事務官)=최근 재무부 서기관으로 榮轉돼 IMF파견 근무중이다。

▲朴元珝(83년 音大卒)=지난달 15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무지카살로네 연주회에 출연。

▲金英洙(83년 大學院卒·忠北大敎授)=최근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로부터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受賞。

▲李泰圭(87년 醫大卒)=지난달 3일 미국신경과학회 산하 국제위원회에서 「결핵성 뇌막염」에 관한 논문으로 올해의 우수수상자에 선정, 워싱턴 쉐라톤호텔에서 受賞。

掲示板

結婚

同窓會館 冠岳홀

*박지석군(91년 工大卒) 김현경양=6월4일 12시 30분。

*김양근군(89년 工大卒) 고진숙양=6월4일 14시。

*김지형군(90년 經營大卒) 노미영양=6월4일 15시30분。

*이희승군(93년 法大卒) 이영임양=6월5일 11시。

*이인호군(87년 自然大卒) 김봉선양=6월5일 12시30분。

*정상오군·홍순희양(89년 師大卒)=6월5일 14시。

*이성호군(84년 師大卒) 최한자양(92년 師大卒)=6월6일 11시。

*김이설군(87년 社會大卒) 장선미양=6월11일 11시。

*박현민군(89년 自然大卒) 박영신양=6월11일 12시30분。

*임 현군(89년 工大卒) 김민정양=6월11일 14시。

*홍석표군(89년 人文大卒) 송정애양=6월12일 11시。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名譽教授 칼럼

水準級에 오른 七言絶句의 漢詩

無得의 세계 읊은 恨젖은 작품

徐 世 鈺
(美大명예교수·書家)

(1)

冷佛日 진달래의 향기 가득한 산골 마을 초가집 한켠에 모셔진 부처님 앞에 꽃 한 송이 올리고 향 사르며 두 손 모아 합장하는 이 마음 이 정성 이 믿음 이 기원 이 발원 이 모두가 다 부처님 앞에 나아가 부처님 가피를 입어 이 세상 모든 중생 다 함께 부처님 되어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육도 중생 다 함께 부처님 되어 불국정토 이루어 지이다 이 세상 모든

年會費 내주신 분

〈理事: 4월2일~4월14일 一般: 4월2일~4월14일〉

理事

◇法科大學
▲이근영(77) ▲이수경(89)

◇商科大學
▲俞琬在(62)대우정보 부사장
▲金健雄(64)태기INT사장

◇人文大學
▲김현목(87) ▲손정희(88) ▲안병욱(76) ▲유성덕(89) ▲조홍근(86) ▲서원석(78) ▲안구현(80) ▲유 진(83) ▲이경희(87)

◇社會大學
▲갈종석(85) ▲권 일(83) ▲김무기(77) ▲김희남(82) ▲노홍석(87) ▲박만순(81) ▲박희령(84) ▲서덕규(58) ▲설대수(86) ▲손수민(88) ▲엄태종(85) ▲육심강(85) ▲이성표(88) ▲전홍찬(83) ▲조한욱(88) ▲최명길(83) ▲최원익(78) ▲최정선(87) ▲최지환(76) ▲최홍윤(84) ▲구자명(76) ▲김대식(87) ▲김연진(89) ▲나윤호(89) ▲마상유(89) ▲박종석(87) ▲배종하(79) ▲서승원(87) ▲손병권(86) ▲손희매(86) ▲유재원(82) ▲유현종(88) ▲임성만(85) ▲조도준(88) ▲지만수(89) ▲최우석(89) ▲최재호(89) ▲최창원(89) ▲최정운(79) ▲홍진욱(88) ▲이겸희(83) ▲홍기선(83)

◇自然大學
▲강미헌(88) ▲강한영(76) ▲김용백(89) ▲이갑근(84) ▲이유숙(86) ▲이한형(80) ▲장병욱(87) ▲홍경환(81) ▲강병산(76) ▲김명규(89) ▲노상석(86) ▲이동일(88) ▲이창복(76) ▲이헌주(89) ▲최현규(88) ▲황찬용(85)

一般

◇人文大學
▲권성휘(83) ▲노재헌(88) ▲오창호(82) ▲이두현(88) ▲이세용(89) ▲이태영(85) ▲최원영(88) ▲김석주(84) ▲박은형(88) ▲오해송(79) ▲이상화(83) ▲이철주(85) ▲진헌진(85) ▲허승호(83)

◇看護大學
▲배금자(54)

◇經營大學
▲김성휘(83)

◇家政大學
▲김경호(72) ▲박달수(73) ▲박동서(65) ▲박민용(85) ▲박상기(62) ▲박승규(67) ▲박영호(72) ▲박재학(76) ▲박정우(81) ▲박진석(85) ▲박한희(61) ▲변남석(86) ▲변일규(50) ▲박노상(61) ▲박대복(67) ▲박만식(58) ▲박봉철(87) ▲박성현(68) ▲박영우(89) ▲박일류(66) ▲박정대(67) ▲박종률(59) ▲박태권(63) ▲박환우(61) ▲변영화(63) ▲변재국(65)

人名밑 원내 숫자는 該當大學의 卒業年度입니다.

◇醫科大學
▲박용철(41) ▲정병숙(50) ▲강부석(83) ▲경신호(59) ▲고원룡(68) ▲곽신웅(87) ▲구자영(58) ▲권수웅(62) ▲김경기(56) ▲김광옥(61) ▲김광현(68) ▲김병기(83) ▲김산필(64) ▲김석진(52) ▲김성배(72) ▲김순모(61) ▲김신정(65) ▲김연호(75) ▲김유항(66) ▲김재한(58) ▲김종원(78) ▲김종현(61) ▲김준모(89) ▲김창언(71) ▲김형수(62) ▲김회수(62) ▲노 광(81) ▲노승탁(66) ▲노정선(66) ▲문석형(54) ▲문우택(61) ▲민정식(60) ▲이상익(46) ▲주희전(47) ▲강행언(65) ▲고광렬(55) ▲곽광우(63) ▲곽영명(69) ▲권명세(77) ▲김 류(56) ▲김계호(58) ▲김광일(85) ▲김동진(73) ▲김봉일(64) ▲김선준(73) ▲김선진(70) ▲김수남(58) ▲김슬근(55) ▲김연식(56) ▲김영유(66) ▲김유규(69) ▲김종호(64) ▲김종의(65) ▲김정섭(74) ▲김종섭(65) ▲김형주(82) ▲남학우(58) ▲노 훈(63) ▲노정석(66) ▲문석기(85) ▲문영기(73) ▲문종규(64) ▲민화식(75) ▲서동규(69) ▲서진우(84) ▲정기초(55) ▲손광우(85) ▲송홍빈(58) ▲신기룡(74) ▲신창덕(62) ▲심재건(77) ▲안동원(65) ▲안병휘(59) ▲안상록(75) ▲안창순(67) ▲양배덕(61) ▲염태우(67) ▲염사연(71) ▲유재준(65) ▲유봉섭(79) ▲유기태(77) ▲유영창(80) ▲유무웅(64) ▲서완석(64) ▲선석문(72) ▲성문홍(68) ▲손태영(57) ▲송홍상(75) ▲신인길(84) ▲신현식(73) ▲신창생(64) ▲안병운(75) ▲안상덕(66) ▲안상춘(72) ▲양근수(62) ▲양승택(61) ▲여득구(69) ▲우남용(63) ▲유영주(52) ▲유호섭(89) ▲유부섭(62) ▲유승웅(60) ▲유종룡(66) ▲이형근(67) ▲이황재(65) ▲임상진(74) ▲임성담(75) ▲임용규(56) ▲장진양(71) ▲정구동(67) ▲전영환(57) ▲정우진(64) ▲정조섭(61) ▲정월진(81) ▲정해길(69) ▲조남창(62) ▲조병우(64) ▲조성용(57) ▲조영주(78) ▲조정호(65) ▲조철권(75) ▲지태환(67) ▲채호석(53) ▲이호현(55) ▲이희영(71) ▲임성규(77) ▲임성빈(56) ▲장석열(89) ▲장철현(62) ▲정상석(75) ▲정구상(66) ▲정운선(60) ▲정현식(77) ▲정호동(79) ▲정현일(64) ▲전태룡(78) ▲조동호(79) ▲조성래(58) ▲조영길(71) ▲조정남(67) ▲조창호(76) ▲주명로(67) ▲채 철(65) ▲천동우(67) ▲김구용(76) ▲김영근(68) ▲김용관(89) ▲김홍률(76) ▲김홍렬(54) ▲길용재(62) ▲박서기(64) ▲송기면(80) ▲안승요(55) ▲양석홍(62) ▲유인철(67) ▲윤순찬(87) ▲이관호(68) ▲이근희(69) ▲이도경(63) ▲이동현(56) ▲이상무(71) ▲이상하(62) ▲이숙경(79) ▲김정기(61) ▲김지연(88) ▲바상만(72) ▲바원규(64) ▲손진규(89) ▲심상우(61) ▲안정환(86) ▲양호석(63) ▲유석형(64) ▲유석복(67) ▲윤무성(61) ▲이광희(88) ▲이상용(65) ▲이부경(54) ▲이돈구(69) ▲이덕남(74) ▲이선진(73) ▲이시철(53) ▲김영철(63) ▲김동준(57) ▲이원식(57) ▲이준기(60) ▲이형주(70) ▲임명미(63) ▲임용택(62) ▲전현기(71) ▲정돈철(72) ▲정선용(63) ▲지근진(64) ▲최양도(76) ▲최정락(68) ▲한산룡(76) ▲한한수(71) ▲현화범(61) ▲홍재희(62) ▲이영돈(71) ▲이장섭(57) ▲이해수(65) ▲이홍래(50) ▲임병기(54) ▲장시출(64) ▲정기선(79) ▲정동성(63) ▲정을규(65) ▲최남헌(65) ▲최영주(82) ▲하인환(55) ▲한중희(61) ▲허문도(64) ▲현호언(57) ▲홍종진(64) ▲이용환(75) ▲이문규(65) ▲이동수(62) ▲이민용(49) ▲이병기(71) ▲이성재(63) ▲이영재(66) ▲이재술(61) ▲이조경(64) ▲이주용(53) ▲이형규(64) ▲인오룡(74) ▲장갑석(57) ▲장인식(65) ▲전병화(68) ▲정복근(64) ▲정용재(50) ▲정정길(70) ▲정화성(72) ▲조규향(57) ▲조봉계(65) ▲주영돈(64) ▲천양철(69) ▲최연대(57) ▲최인일(70) ▲최형남(70) ▲한영환(60) ▲허성회(75) ▲홍성훈(61) ▲홍승국(48) ▲홍영남(64) ▲홍종철(69) ▲윤주영(87) ▲이 훈(66) ▲유태식(64) ▲이관용(60) ▲이경보(50) ▲이광우(64) ▲이규설(63) ▲이무열(71) ▲이병오(71) ▲이상원(69) ▲이수일(67) ▲이영욱(85) ▲이우연(55) ▲이원복(58) ▲이재풍(73) ▲이정성(59) ▲이정일(65) ▲이종성(65) ▲이진주(63) ▲이창대(67) ▲이태규(78) ▲윤주홍(74) ▲윤호기(69) ▲이강국(69) ▲이경훈(65) ▲이광민(63) ▲이구택(69) ▲이남구(75) ▲이무진(57) ▲이병휘(54) ▲이수열(87) ▲이용선(78) ▲이운택(70) ▲이익효(65) ▲이정복(56) ▲이정우(65) ▲이정한(48) ▲이준환(56) ▲이찬진(89) ▲이창수(86) ▲이풍기(52) ▲이슬률(61) ▲최겸수(64) ▲최달호(75) ▲최동일(66) ▲최영남(57) ▲최용덕(55) ▲최재영(87) ▲최종명(61) ▲최태진(63) ▲한명의(51) ▲한수양(71) ▲한태룡(56) ▲홍선표(57) ▲홍영희(58) ▲홍영표(59) ▲황해룡(78) ▲최대현(56) ▲최상현(63) ▲최영택(72) ▲최원규(82) ▲최정민(85) ▲최태영(69) ▲한강수(78) ▲한범수(68) ▲한승국(83) ▲현진우(85) ▲홍순채(71) ▲홍영하(67) ▲황홍구(62) ▲최기언(78) ▲김홍준(57) ▲김정철(63) ▲김지연(88) ▲김정기(61) ▲김영근(68) ▲김구용(76) ▲김용관(89) ▲김홍률(76) ▲길용재(62) ▲박서기(64) ▲송기면(80) ▲안승요(55) ▲양석홍(62) ▲유인철(67) ▲윤순찬(87) ▲이관호(68) ▲이근희(69) ▲이도경(63) ▲이동현(56) ▲이상무(71) ▲이상하(62) ▲이숙경(79) ▲김홍렬(54) ▲김홍률(76) ▲김홍관(89) ▲김영근(68) ▲김구용(76) ▲김홍준(57) ▲김정기(61) ▲김지연(88) ▲바상만(72) ▲바원규(64) ▲손진규(89) ▲안정환(86) ▲양호석(63) ▲유석형(64) ▲유석복(67) ▲윤무성(61) ▲이광희(88) ▲이상용(65) ▲이부경(54) ▲이돈구(69) ▲이덕남(74) ▲이선진(73) ▲이시철(53) ▲김영철(63) ▲김동준(57) ▲이원식(57) ▲이준기(60) ▲이형주(70) ▲임명미(63) ▲임용택(62) ▲전현기(71) ▲정돈철(72) ▲정선용(63) ▲지근진(64) ▲최양도(76) ▲최정락(68) ▲한산룡(76) ▲한한수(71) ▲현화범(61) ▲홍재희(62) ▲이영돈(71) ▲이장섭(57) ▲이해수(65) ▲이홍래(50) ▲임병기(54) ▲장시출(64) ▲정기선(79) ▲정동성(63) ▲정을규(65) ▲최남헌(65) ▲최영주(82) ▲하인환(55) ▲한중희(61) ▲허문도(64) ▲현호언(57) ▲홍종진(64) ▲이용환(75) ▲이장섭(57) ▲이해수(65) ▲이홍래(50) ▲임병기(54) ▲장시출(64) ▲정기선(79) ▲정동성(63) ▲정을규(65) ▲최남헌(65) ▲최영주(82) ▲하인환(55) ▲한중희(61) ▲허문도(64) ▲현호언(57) ▲홍종진(64) ▲이문규(65) ▲이민용(49) ▲이병기(71) ▲이성재(63) ▲이영재(66) ▲이재술(61) ▲이조경(64) ▲이주용(53) ▲이형규(64) ▲인오룡(74) ▲장갑석(57) ▲장인식(65) ▲전병화(68) ▲정복근(64) ▲정용재(50) ▲정정길(70) ▲정화성(72) ▲조규향(57) ▲조봉계(65) ▲주영돈(64) ▲천양철(69) ▲최연대(57) ▲최인일(70) ▲최형남(70) ▲한영환(60) ▲허성회(75) ▲홍성훈(61) ▲홍승국(48) ▲홍영남(64) ▲홍종철(69

◇醫科大學
▶김○○(64)
▶김○○(65)
▶김○○(66)
▶김○○(67)
▶김○○(68)
▶김○○(69)
▶김○○(70)
▶김○○(71)
▶김○○(72)
▶김○○(73)
▶김○○(74)
▶김○○(75)
▶김○○(76)
▶김○○(77)
▶김○○(78)
▶김○○(79)
▶김○○(80)
▶김○○(81)
▶김○○(82)
▶김○○(83)
▶김○○(84)
▶김○○(85)
▶김○○(86)
▶김○○(87)
▶김○○(88)
▶김○○(89)
▶김○○(90)
▶김○○(91)
▶김○○(92)
▶김○○(93)
▶김○○(94)
▶김○○(95)
▶김○○(96)
▶김○○(97)
▶김○○(98)
▶김○○(99)
▶김○○(100)
▶김○○(101)
▶김○○(102)
▶김○○(103)
▶김○○(104)
▶김○○(105)
▶김○○(106)
▶김○○(107)
▶김○○(108)
▶김○○(109)
▶김○○(110)
▶김○○(111)
▶김○○(112)
▶김○○(113)
▶김○○(114)
▶김○○(115)
▶김○○(116)
▶김○○(117)
▶김○○(118)
▶김○○(119)
▶김○○(120)
▶김○○(121)
▶김○○(122)
▶김○○(123)
▶김○○(124)
▶김○○(125)
▶김○○(126)
▶김○○(127)
▶김○○(128)
▶김○○(129)
▶김○○(130)
▶김○○(131)
▶김○○(132)
▶김○○(133)
▶김○○(134)
▶김○○(135)
▶김○○(136)
▶김○○(137)
▶김○○(138)
▶김○○(139)
▶김○○(140)
▶김○○(141)
▶김○○(142)
▶김○○(143)
▶김○○(144)
▶김○○(145)
▶김○○(146)
▶김○○(147)
▶김○○(148)
▶김○○(149)
▶김○○(150)
▶김○○(151)
▶김○○(152)
▶김○○(153)
▶김○○(154)
▶김○○(155)
▶김○○(156)
▶김○○(157)
▶김○○(158)
▶김○○(159)
▶김○○(160)
▶김○○(161)
▶김○○(162)
▶김○○(163)
▶김○○(164)
▶김○○(165)
▶김○○(166)
▶김○○(167)
▶김○○(168)
▶김○○(169)
▶김○○(170)
▶김○○(171)
▶김○○(172)
▶김○○(173)
▶김○○(174)
▶김○○(175)
▶김○○(176)
▶김○○(177)
▶김○○(178)
▶김○○(179)
▶김○○(180)
▶김○○(181)
▶김○○(182)
▶김○○(183)
▶김○○(184)
▶김○○(185)
▶김○○(186)
▶김○○(187)
▶김○○(188)
▶김○○(189)
▶김○○(190)
▶김○○(191)
▶김○○(192)
▶김○○(193)
▶김○○(194)
▶김○○(195)
▶김○○(196)
▶김○○(197)
▶김○○(198)
▶김○○(199)
▶김○○(200)
▶김○○(201)
▶김○○(202)
▶김○○(203)
▶김○○(204)
▶김○○(205)
▶김○○(206)
▶김○○(207)
▶김○○(208)
▶김○○(209)
▶김○○(210)
▶김○○(211)
▶김○○(212)
▶김○○(213)
▶김○○(214)
▶김○○(215)
▶김○○(216)
▶김○○(217)
▶김○○(218)
▶김○○(219)
▶김○○(220)
▶김○○(221)
▶김○○(222)
▶김○○(223)
▶김○○(224)
▶김○○(225)
▶김○○(226)
▶김○○(227)
▶김○○(228)
▶김○○(229)
▶김○○(230)
▶김○○(231)
▶김○○(232)
▶김○○(233)
▶김○○(234)
▶김○○(235)
▶김○○(236)
▶김○○(237)
▶김○○(238)
▶김○○(239)
▶김○○(240)
▶김○○(241)
▶김○○(242)
▶김○○(243)
▶김○○(244)
▶김○○(245)
▶김○○(246)
▶김○○(247)
▶김○○(248)
▶김○○(249)
▶김○○(250)
▶김○○(251)
▶김○○(252)
▶김○○(253)
▶김○○(254)
▶김○○(255)
▶김○○(256)
▶김○○(257)
▶김○○(258)
▶김○○(259)
▶김○○(260)
▶김○○(261)
▶김○○(262)
▶김○○(263)
▶김○○(264)
▶김○○(265)
▶김○○(266)
▶김○○(267)
▶김○○(268)
▶김○○(269)
▶김○○(270)
▶김○○(271)
▶김○○(272)
▶김○○(273)
▶김○○(274)
▶김○○(275)
▶김○○(276)
▶김○○(277)
▶김○○(278)
▶김○○(279)
▶김○○(280)
▶김○○(281)
▶김○○(282)
▶김○○(283)
▶김○○(284)
▶김○○(285)
▶김○○(286)
▶김○○(287)
▶김○○(288)
▶김○○(289)
▶김○○(290)
▶김○○(291)
▶김○○(292)
▶김○○(293)
▶김○○(294)
▶김○○(295)
▶김○○(296)
▶김○○(297)
▶김○○(298)
▶김○○(299)
▶김○○(300)
▶김○○(301)
▶김○○(302)
▶김○○(303)
▶김○○(304)
▶김○○(305)
▶김○○(306)
▶김○○(307)
▶김○○(308)
▶김○○(309)
▶김○○(310)
▶김○○(311)
▶김○○(312)
▶김○○(313)
▶김○○(314)
▶김○○(315)
▶김○○(316)
▶김○○(317)
▶김○○(318)
▶김○○(319)
▶김○○(320)
▶김○○(321)
▶김○○(322)
▶김○○(323)
▶김○○(324)
▶김○○(325)
▶김○○(326)
▶김○○(327)
▶김○○(328)
▶김○○(329)
▶김○○(330)
▶김○○(331)
▶김○○(332)
▶김○○(333)
▶김○○(334)
▶김○○(335)
▶김○○(336)
▶김○○(337)
▶김○○(338)
▶김○○(339)
▶김○○(340)
▶김○○(341)
▶김○○(342)
▶김○○(343)
▶김○○(344)
▶김○○(345)
▶김○○(346)
▶김○○(347)
▶김○○(348)
▶김○○(349)
▶김○○(350)
▶김○○(351)
▶김○○(352)
▶김○○(353)
▶김○○(354)
▶김○○(355)
▶김○○(356)
▶김○○(357)
▶김○○(358)
▶김○○(359)
▶김○○(360)
▶김○○(361)
▶김○○(362)
▶김○○(363)
▶김○○(364)
▶김○○(365)
▶김○○(366)
▶김○○(367)
▶김○○(368)
▶김○○(369)
▶김○○(370)
▶김○○(371)
▶김○○(372)
▶김○○(373)
▶김○○(374)
▶김○○(375)
▶김○○(376)
▶김○○(377)
▶김○○(378)
▶김○○(379)
▶김○○(380)
▶김○○(381)
▶김○○(382)
▶김○○(383)
▶김○○(384)
▶김○○(385)
▶김○○(386)
▶김○○(387)
▶김○○(388)
▶김○○(389)
▶김○○(390)
▶김○○(391)
▶김○○(392)
▶김○○(393)
▶김○○(394)
▶김○○(395)
▶김○○(396)
▶김○○(397)
▶김○○(398)
▶김○○(399)
▶김○○(400)
▶김○○(401)
▶김○○(402)
▶김○○(403)
▶김○○(404)
▶김○○(405)
▶김○○(406)
▶김○○(407)
▶김○○(408)
▶김○○(409)
▶김○○(410)
▶김○○(411)
▶김○○(412)
▶김○○(413)
▶김○○(414)
▶김○○(415)
▶김○○(416)
▶김○○(417)
▶김○○(418)
▶김○○(419)
▶김○○(420)
▶김○○(421)
▶김○○(422)
▶김○○(423)
▶김○○(424)
▶김○○(425)
▶김○○(426)
▶김○○(427)
▶김○○(428)
▶김○○(429)
▶김○○(430)
▶김○○(431)
▶김○○(432)
▶김○○(433)
▶김○○(434)
▶김○○(435)
▶김○○(436)
▶김○○(437)
▶김○○(438)
▶김○○(439)
▶김○○(440)
▶김○○(441)
▶김○○(442)
▶김○○(443)
▶김○○(444)
▶김○○(445)
▶김○○(446)
▶김○○(447)
▶김○○(448)
▶김○○(449)
▶김○○(450)
▶김○○(451)
▶김○○(452)
▶김○○(453)
▶김○○(454)
▶김○○(455)
▶김○○(456)
▶김○○(457)
▶김○○(458)
▶김○○(459)
▶김○○(460)
▶김○○(461)
▶김○○(462)
▶김○○(463)
▶김○○(464)
▶김○○(465)
▶김○○(466)
▶김○○(467)
▶김○○(468)
▶김○○(469)
▶김○○(470)
▶김○○(471)
▶김○○(472)
▶김○○(473)
▶김○○(474)
▶김○○(475)
▶김○○(476)
▶김○○(477)
▶김○○(478)
▶김○○(479)
▶김○○(480)
▶김○○(481)
▶김○○(482)
▶김○○(483)
▶김○○(484)
▶김○○(485)
▶김○○(486)
▶김○○(487)
▶김○○(488)
▶김○○(489)
▶김○○(490)
▶김○○(491)
▶김○○(492)
▶김○○(493)
▶김○○(494)
▶김○○(495)
▶김○○(496)
▶김○○(497)
▶김○○(498)
▶김○○(499)
▶김○○(500)
▶김○○(501)
▶김○○(502)
▶김○○(503)
▶김○○(504)
▶김○○(505)
▶김○○(506)
▶김○○(507)
▶김○○(508)
▶김○○(509)
▶김○○(510)
▶김○○(511)
▶김○○(512)
▶김○○(513)
▶김○○(514)
▶김○○(515)
▶김○○(516)
▶김○○(517)
▶김○○(518)
▶김○○(519)
▶김○○(520)
▶김○○(521)
▶김○○(522)
▶김○○(523)
▶김○○(524)
▶김○○(525)
▶김○○(526)
▶김○○(527)
▶김○○(528)
▶김○○(529)
▶김○○(530)
▶김○○(531)
▶김○○(532)
▶김○○(533)
▶김○○(534)
▶김○○(535)
▶김○○(536)
▶김○○(537)
▶김○○(538)
▶김○○(539)
▶김○○(540)
▶김○○(541)
▶김○○(542)
▶김○○(543)
▶김○○(544)
▶김○○(545)
▶김○○(546)
▶김○○(547)
▶김○○(548)
▶김○○(549)
▶김○○(550)
▶김○○(551)
▶김○○(552)
▶김○○(553)
▶김○○(554)
▶김○○(555)
▶김○○(556)
▶김○○(557)
▶김○○(558)
▶김○○(559)
▶김○○(560)
▶김○○(561)
▶김○○(562)
▶김○○(563)
▶김○○(564)
▶김○○(565)
▶김○○(566)
▶김○○(567)
▶김○○(568)
▶김○○(569)
▶김○○(570)
▶김○○(571)
▶김○○(572)
▶김○○(573)
▶김○○(574)
▶김○○(575)
▶김○○(576)
▶김○○(577)
▶김○○(578)
▶김○○(579)
▶김○○(580)
▶김○○(581)
▶김○○(582)
▶김○○(583)
▶김○○(584)
▶김○○(585)
▶김○○(586)
▶김○○(587)
▶김○○(588)
▶김○○(589)
▶김○○(590)
▶김○○(591)
▶김○○(592)
▶김○○(593)
▶김○○(594)
▶김○○(595)
▶김○○(596)
▶김○○(597)
▶김○○(598)
▶김○○(599)
▶김○○(600)
▶김○○(601)
▶김○○(602)
▶김○○(603)
▶김○○(604)
▶김○○(605)
▶김○○(606)
▶김○○(607)
▶김○○(608)
▶김○○(609)
▶김○○(610)
▶김○○(611)
▶김○○(612)
▶김○○(613)
▶김○○(614)
▶김○○(615)
▶김○○(616)
▶김○○(617)
▶김○○(618)
▶김○○(619)
▶김○○(620)
▶김○○(621)
▶김○○(622)
▶김○○(623)
▶김○○(624)
▶김○○(625)
▶김○○(626)
▶김○○(627)
▶김○○(628)
▶김○○(629)
▶김○○(630)
▶김○○(631)
▶김○○(632)
▶김○○(633)
▶김○○(634)
▶김○○(635)
▶김○○(636)
▶김○○(637)
▶김○○(638)
▶김○○(639)
▶김○○(640)
▶김○○(641)
▶김○○(642)
▶김○○(643)
▶김○○(644)
▶김○○(645)
▶김○○(646)
▶김○○(647)
▶김○○(648)
▶김○○(649)
▶김○○(650)
▶김○○(651)
▶김○○(652)
▶김○○(653)
▶김○○(654)
▶김○○(655)
▶김○○(656)
▶김○○(657)
▶김○○(658)
▶김○○(659)
▶김○○(660)
▶김○○(661)
▶김○○(662)
▶김○○(663)
▶김○○(664)
▶김○○(665)
▶김○○(666)
▶김○○(667)
▶김○○(668)
▶김○○(669)
▶김○○(670)
▶김○○(671)
▶김○○(672)
▶김○○(673)
▶김○○(674)
▶김○○(675)
▶김○○(676)
▶김○○(677)
▶김○○(678)
▶김○○(679)
▶김○○(680)
▶김○○(681)
▶김○○(682)
▶김○○(683)
▶김○○(684)
▶김○○(685)
▶김○○(686)
▶김○○(687)
▶김○○(688)
▶김○○(689)
▶김○○(690)
▶김○○(691)
▶김○○(692)
▶김○○(693)
▶김○○(694)
▶김○○(695)
▶김○○(696)
▶김○○(697)
▶김○○(698)
▶김○○(699)
▶김○○(700)
▶김○○(701)
▶김○○(702)
▶김○○(703)
▶김○○(704)
▶김○○(705)
▶김○○(706)
▶김○○(707)
▶김○○(708)
▶김○○(709)
▶김○○(710)
▶김○○(711)
▶김○○(712)
▶김○○(713)
▶김○○(714)
▶김○○(715)
▶김○○(716)
▶김○○(717)
▶김○○(718)
▶김○○(719)
▶김○○(720)
▶김○○(721)
▶김○○(722)
▶김○○(723)
▶김○○(724)
▶김○○(725)
▶김○○(726)
▶김○○(727)
▶김○○(728)
▶김○○(729)
▶김○○(730)
▶김○○(731)
▶김○○(732)
▶김○○(733)
▶김○○(734)
▶김○○(735)
▶김○○(736)
▶김○○(737)
▶김○○(738)
▶김○○(739)
▶김○○(740)
▶김○○(741)
▶김○○(742)
▶김○○(743)
▶김○○(744)
▶김○○(745)
▶김○○(746)
▶김○○(747)
▶김○○(748)
▶김○○(749)
▶김○○(750)
▶김○○(751)
▶김○○(752)
▶김○○(753)
▶김○○(754)
▶김○○(755)
▶김○○(756)
▶김○○(757)
▶김○○(758)
▶김○○(759)
▶김○○(760)
▶김○○(761)
▶김○○(762)
▶김○○(763)
▶김○○(764)
▶김○○(765)
▶김○○(766)
▶김○○(767)
▶김○○(768)
▶김○○(769)
▶김○○(770)
▶김○○(771)
▶김○○(772)
▶김○○(773)
▶김○○(774)
▶김○○(775)
▶김○○(776)
▶김○○(777)
▶김○○(778)
▶김○○(779)
▶김○○(780)
▶김○○(781)
▶김○○(782)
▶김○○(783)
▶김○○(784)
▶김○○(785)
▶김○○(786)
▶김○○(787)
▶김○○(788)
▶김○○(789)
▶김○○(790)
▶김○○(791)
▶김○○(792)
▶김○○(793)
▶김○○(794)
▶김○○(795)
▶김○○(796)
▶김○○(797)
▶김○○(798)
▶김○○(799)
▶김○○(800)
▶김○○(801)
▶김○○(802)
▶김○○(803)
▶김○○(804)
▶김○○(805)
▶김○○(806)
▶김○○(807)
▶김○○(808)
▶김○○(809)
▶김○○(810)
▶김○○(811)
▶김○○(812)
▶김○○(813)
▶김○○(814)
▶김○○(815)
▶김○○(816)
▶김○○(817)
▶김○○(818)
▶김○○(819)
▶김○○(820)
▶김○○(821)
▶김○○(822)
▶김○○(823)
▶김○○(824)
▶김○○(825)
▶김○○(826)
▶김○○(827)
▶김○○(828)
▶김○○(829)
▶김○○(830)
▶김○○(831)
▶김○○(832)
▶김○○(833)
▶김○○(834)
▶김○○(835)
▶김○○(836)
▶김○○(837)
▶김○○(838)
▶김○○(839)
▶김○○(840)
▶김○○(841)
▶김○○(842)
▶김○○(843)
▶김○○(844)
▶김○○(845)
▶김○○(846)
▶김○○(847)
▶김○○(848)
▶김○○(849)
▶김○○(850)
▶김○○(851)
▶김○○(852)
▶김○○(853)
▶김○○(854)
▶김○○(855)
▶김○○(856)
▶김○○(857)
▶김○○(858)
▶김○○(859)
▶김○○(860)
▶김○○(861)
▶김○○(862)
▶김○○(863)
▶김○○(864)
▶김○○(865)
▶김○○(866)
▶김○○(867)
▶김○○(868)
▶김○○(869)
▶김○○(870)
▶김○○(871)
▶김○○(872)
▶김○○(873)
▶김○○(874)
▶김○○(875)
▶김○○(876)
▶김○○(877)
▶김○○(878)
▶김○○(879)
▶김○○(880)
▶김○○(881)
▶김○○(882)
▶김○○(883)
▶김○○(884)
▶김○○(885)
▶김○○(886)
▶김○○(887)
▶김○○(888)
▶김○○(889)
▶김○○(890)
▶김○○(891)
▶김○○(892)
▶김○○(893)
▶김○○(894)
▶김○○(895)
▶김○○(896)
▶김○○(897)
▶김○○(898)
▶김○○(899)
▶김○○(900)
▶김○○(901)
▶김○○(902)
▶김○○(903)
▶김○○(904)
▶김○○(905)
▶김○○(906)
▶김○○(907)
▶김○○(908)
▶김○○(909)
▶김○○(910)
▶김○○(911)
▶김○○(912)
▶김○○(913)
▶김○○(914)
▶김○○(915)
▶김○○(916)
▶김○○(917)
▶김○○(918)
▶김○○(919)
▶김○○(920)
▶김○○(921)
▶김○○(922)
▶김○○(923)
▶김○○(924)
▶김○○(925)
▶김○○(926)
▶김○○(927)
▶김○○(928)
▶김○○(929)
▶김○○(930)
▶김○○(931)
▶김○○(932)
▶김○○(933)
▶김○○(934)
▶김○○(935)
▶김○○(936)
▶김○○(937)
▶김○○(938)
▶김○○(939)
▶김○○(940)
▶김○○(941)
▶김○○(942)
▶김○○(943)
▶김○○(944)
▶김○○(945)
▶김○○(946)
▶김○○(947)
▶김○○(948)
▶김○○(949)
▶김○○(950)
▶김○○(951)
▶김○○(952)
▶김○○(953)
▶김○○(954)
▶김○○(955)
▶김○○(956)
▶김○○(957)
▶김○○(958)
▶김○○(959)
▶김○○(960)
▶김○○(961)
▶김○○(962)
▶김○○(963)
▶김○○(964)
▶김○○(965)
▶김○○(966)
▶김○○(967)
▶김○○(968)
▶김○○(969)
▶김○○(970)
▶김○○(971)
▶김○○(972)
▶김○○(973)
▶김○○(974)
▶김○○(975)
▶김○○(976)
▶김○○(977)
▶김○○(978)
▶김○○(979)
▶김○○(980)
▶김○○(981)
▶김○○(982)
▶김○○(983)
▶김○○(984)
▶김○○(985)
▶김○○(986)
▶김○○(987)
▶김○○(988)
▶김○○(989)
▶김○○(990)
▶김○○(991)
▶김○○(992)
▶김○○(993)
▶김○○(994)
▶김○○(995)
▶김○○(996)
▶김○○(997)
▶김○○(998)
▶김○○(999)
▶김○○(1000)

新刊

■經濟學槪論
——— 林鍾哲 著

56년 商大卒, 母校 社會大교수인 著者가 經濟세계의 복잡한 運動原理를 이해 하기 쉽도록 비교적 쉬운 문장으로 著者의 思索을 곁들여 꾸며낸 개론서이다.

특히 著者의 30여년의 講壇경험을 토대로 경제학에 대한 자기류의 思索이 도처에 깔려있고 抽象的인 내용들의 단순한 飜案이 아니라 기본개념과 事例를 설명함에 있어 特有의 個性이 풍기는 언어를 선택하면서 경제학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경제사를 비롯한 人類學, 경제체제론, 社會學에 관한 著者의 해박한 지식을 적절히 配合하여 비근한 실례까지 곁들여 理解를 돕고 있다.

또한 勞動組合을 家計, 企業, 정부와 병렬시킨 또 하나의 經濟主體로 설정하여 分配理論의 장 다음의 독립된 章으로 比重있게 처리하면서 현실경제를 生動感있게 理解시키려 한 力著이다.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 白樂晴 著

한국문단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人文大 영문학교수인 著者가 우리의 分斷體制와 그 방법론으로서의 변혁에 대한 논의를 오래전부터 전개해 物議와 논란의 과잉이 지적되기도 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몇년간의 공부에 대한 겸허한 비판을 응축적으로 다룬 저서.

著者가 이 책의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分斷體制」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러 해를 지내면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물의와 논란을 이 책에선 補論의 형태로 재정리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의 좌절과 하소연을 넘어선 「희망하기 공부」를 제기할만큼 진전되어 통일논의에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의 논쟁과잉에서 90년대의 논쟁불모로 급전환되어 침체된 우리의 知的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부분적으로나마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公演

■마드리室內樂團 演奏會
——— 6월15일 예술의 전당

세실예술기획에서 주최하는 마드리 실내악단 제19회 정기연주회가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개최된다.

76년 音大卒의 林憲政동문의 객원지휘로, 소프라노 鄭福珠(70년 音大 성악과卒), 바이올린에 鄭元順(89년 音大 기악과卒)동문이 출연한다.

이날 연주될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Andante cantabile op.11, 모짜르트의 Violin concerto No4 in D major, Kv. 218과 Symphony No. 36 in C major, Kv. 425 그리고 베토벤 작품의 Scene und Arie: Ah! Perfido 등이다.

指揮를 맡은 林憲政교수는 音協의 지휘부문의 音樂賞과 文體部의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受賞했으며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이면서 母校 音大교수로 있다.

소프라노 鄭福珠교수는 梨大에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인디애나大에서 성악을 전공 碩·博士학위를 취득했다.

바이올린의 鄭元順동문은 美 클리블랜드 음악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워싱턴大에서 박사과정을 연수하고 있다.

■아울로스 목관 5중주
——— 6월22일 예술의 전당

아울로스 목관 5重奏團 제5회 정기연주회가 6월 22일 오후8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개최된다.

클라리넷, 플룻, 오보에, 바순, 호른으로 5중주를 이루는 아울로스는 정기적인 연주회를 가지면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李昌洙(71년 器樂科卒)동문은 미국 템플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코리언 심포니오케스트라 소속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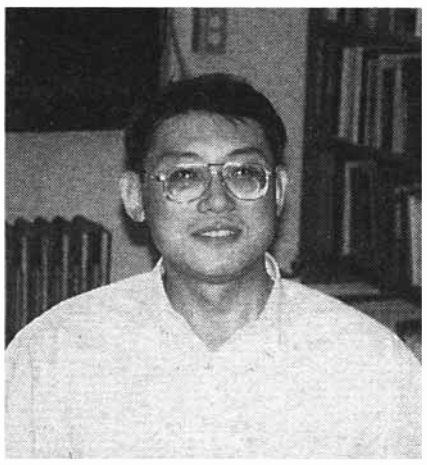
오보에의 金亨燮(76년 器樂科卒)동문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음악원을 졸업하고 국내 각 심포니와 협연하고 있으며 모교를 비롯 한양대, 경희대 등에 出講중이다.

호른의 金泳律(80년 器樂科卒)동문은 미국의 템플大에서 碩士, 이스트만大에서 博士학위를 취득, 현재 단국대 교수로 재직중인데 연주곡은 화르카스의 Antiche Danze Vngheresi, 라이카의 목관5중주곡, 달의 5개의 木管을 위한 알레그로와 아리오소, 다마세의 17개의 演奏曲등이다.

年會費납부 지로案內
■지로번호…7500875

精誠으로 이루어지는 發展기금
出捐동문들에 얽힌 美談 몇가지

母校에서 「財團法人 서울大學校 發展基金」에 着手하게 된 緣由는 「외국의 선진대학들이 활발한 사회의 지원과 협조속에서 성장해왔다는 사실과 서울대학교의 발전에 참여를 원한는 많은 분들이 그 구체적인 방안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대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8월에 발족했다.


▲崔勝彦 사범대교수

민족의 앞날에 투자한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모교의 발전기금에 도움을 주었다. 그중 몇가지 事例를 取材하면서 精誠만 있으면 發展基金의 出捐額은 반드시 成功할 것이라는 자신을 갖게 되면서 여기 몇가지 出捐者의 고마운 일들을 소개한다.

14억 기탁한 木手의 善行 他山之石
橫死한 아들기려 1억보낸 父母도

먼저, 부부가 모교 졸업생으로 2천만원을 발전기금에 기탁한 경우가 있다. 韓章熙, 金在惠부부는 65년 法大를 졸업한 19회 동기동창으로서 평소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좋은 일, 뜻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오던 차에 각각 1천만원씩을 法大奬學基金으로 전달했다. 현재 韓동문은 태주공업 사장으로 있으며 金동문은 함마천산하 해운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모교 노동조합 운영위원들

또 다른 事例는 母校 졸업생이자 師大敎授로 재직중인 崔勝彦(76년 自然大 天文學科卒), 盧熙芳(77년 師大 地理敎育學科卒)부부는 5백만원씩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출연했다. 崔동문은 『재학시 장학금을 받아 온 것에 늘 감사하게 생각해오던 차에, 최근 3년간의 교수아파트에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해오다 모교의 배려로 木洞 賃貸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감사의 보답으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崔동문은 『이 기금이 교육사업에 헌신하신 아버님의 뜻을 기려 基礎학술기금으로 운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母校의 각계 분문에서 사무원으로서 열심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는 모교 노동조합원 2백40여명이 총회를 거쳐 매학기 30만원씩을 5년간 기금출연에 동참하기로 결의가 되어 母校敎職員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있다. 노동조합위원장인 홍성민씨는 『평소 서울대의 일원으로서 금지를 가져오던 차에 미력이나마 서울대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회비를 거두었으니 값지게 써 달라』고 말하면서 約定한 금액을 出捐했다.

그밖에 工大 黃宗屹(조선해양공학)교수가 정년퇴임기념으로 도서기금 1천만원을, 趙完圭(52년 文理大卒·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前모교총장이 「雪浪생물학기금」으로 2천3백만원을 출연했으며 금강운수 理事인 李千萬씨가 유학중 갑자기 사망한 아들 李湘奏(88년 人文大 英文學科卒)군을 기려 장학기금 1억을, 尹全秀·李三洛부부가 장래를 책임질 英才에게 써달라며 40년간 木手로 번 14억 상당의 부동산을 기탁해서 都下 各日刊紙에서도 話題의 人物로 등장한 바 있다.

母校 소식

敎育·硏究·조직 調整위원회 발족

學體制 재편작업 본격손질

부총장 중심 實行方案 2학기까지 마련

지난달 20일 母校에서는 學體制실시등을 통한 교육편제 및 연구편제의 재편작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될 「교육·연구조직 조정위원회」(위원장 金商周 부총장)가 발족됐다.

이 조정위원회는 교육·연구조직 조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을 설정할 「委員會」와 이를 실무적으로 支援할 「實行委員會」, 자문과 의견교환등의 역할을 담당할 「諮問委員團」등으로 구성했다.

한편 實行委員會는 事案에 따라 대학별 및 專門領域別 分科委員會와 大學間 協力委員會를 가동하게 된다.

金商周부총장은 조정위원회가 추진하게 될 大學編制의 재편방향에 대해 『學事과정은 학과를 통합 조정한 학부를 기본교육단위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각각 학과와 전공을 기본단위로 하여 편성한다는 원칙밑에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밝히면서 『大學院과정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운영키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정위원회는 이번 학기중으로 교육 및 연구편제의 조정을 위한 試案을 작성하고 2학기까지는 실천방안과 관련규정의 제정 및 改定을 끝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研究費총액 4백50억원

교수 1인당 평균 3천3백만원

母校 교수들이 지난해 정부와 기업체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총액은 4백48억6백만원이며 교수 1인당 평균 3천3백만원씩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공계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는 4천5백만원으로 인문사회계 교수의 평균 연구비 1천1백만원보다 4배이상 많았다.

연구처에 따르면, 16개 단과대학 및 3개 대학원, 부설연구소등 25개 기관의 교수 1천3백46명이 지난해동안 정부와 기업체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는 인문·사회 예체능계가 53억8천만원(12%), 자연·이공·의약학계가 3백94억2천6백만원(88%)으로 총4백48억6백만원,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천3백만원으로 이는 92년에 비해 각각 23.1%, 21.3% 증가한 것이다.

재원별 연구비는 다음과 같다.

▲정부기관인 교육부, 과학기술처 및 상공자원부 지원—1백8억6천1백만원(24.3%)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 지원—1백95억5천4백만원(43.6%) ▲기업체 및 각종 재단 지원—1백35억7천1백만원(30.3%) ▲대학발전기금 학술연구비—8억2천만원(1.8%)

開校50주년 기념사업 提案·아이디어 公募

母校企劃室(室長 金東建 교수)은 96년 「開校50周年 記念事業」과 「母校 2千年代 未來像」에 대한 學內外의 제안 및 아이디어를 公募한다.

公募내용을 보면 開校50주년 標語 및 新規사업, 母校 2千年代 未來像등이며 母校2천년대 미래상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는 동문은 2백자 원고지 10매 이상의 분량으로 교육·연구부문, 캠퍼스 시설·관리부문 등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明示하여 응모하면 된다.

重點硏究所로 指定돼

自然과학 연구소 교육부서

지난달 7일 母校 自然科學綜合硏究所가 교육부가 선정한 「重點硏究所」로 선정돼 15억1천8백50만원의 연구비를 배정받았다. 나후원국내의 基礎科學분야를 중점교육키 위해 교육부가 전국 60여개대학의 기초과학연구소중 18개 대학연구소를 연구능력에 따라 「중점연구소」, 「地域據點硏究所」, 「奬勵地域거점연구소」로 等級化하고 이들 18개 연구소에만 硏究費를 지급했다.

각급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연구과제 최종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번 硏究集團分類에서 母校와 延世大, 高麗大, 浦項工大, 釜山大등이 중점연구소로 선정돼 교육부의 전체 學術支援費의 57.3%를 배정받게 된다.

「硏究公園」조성 토론회 계획

각계의견 수렴목적으로 실시

母校가 産學·硏協同硏究를 통한 인력개발 및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大 硏究公園」(가칭)의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6월1일 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硏究公園조성사업의 의의를 홍보함과 동시에 각계의 좋은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내 교수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체 인사, 관계행정부처 인사등 1백50여명이 초청돼 연구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모교 호암교수회관 동남쪽에 2만5천평의 면적으로 1996년 9월에 준공 및 일부예정인 硏究公園은 인큐베이터 시설운영으로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자 육성은 물론 모교의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모교 발전기금을 확충하는데 커다란 효과를 줄 수 있다.

李炳璨교수등 17명 명예교수로 새로 추대

母校는 지난달 17일 17명의 교수를 명예교수로 추대했다.

지난 4월 6일 열린 명예교수 선정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새로 추대된 명예교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炳璨(人文大 獨文學科) ▲朴奉植(社會大 外交學科) ▲沈昞求(經營大 經營學科) ▲潘性祐(農生大 農經濟學科) ▲沈永根(農生大 農經濟學科) ▲高在君(農生大 農經濟學科) ▲徐世鈺(美大 東洋畵科) ▲金敎滿(美大 産業디자인學科) ▲朴玉茁(師大 佛語敎育科) ▲閔獻基(醫大 醫學科) ▲文炯魯(醫大 醫學科) ▲李定均(醫大 醫學科) ▲李尙國(醫大 醫學科) ▲崔鍾起(行大院 行政學科) ▲金海東(行大院 行政學科) ▲安海均(行大院 行政學科) ▲禹源植(天然物科學硏究所)

硏究재단 위해 齒大 규정검토

齒科大學(학장 李穆昕)은 지난달 재단법인 서울치대 교육연구재단이 정식 허가를 받음에 따라 지난 6일 교수회의를 열고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금관리규정(안)」「간접연구경비 관리규정(안)」등 세부 규정(안)을 검토, 통과시켰다.

한편 4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소식」을 창간했다.

法大연극회 두번째 公演

劇中劇 형식 의시나리오

法大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法大演劇會가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3회에 걸쳐 冠岳캠퍼스 4동 대형강당에서 「…를 기다리며」를 公演했다.

이번으로 제2회 法大生 公演이 되는 「…를 기다리며」는 사뮤엘 베케트原作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劇中劇 형식으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공연하기 위해 연습하는 한 大學演劇班의 日常을 그린 작품이다. 이 公演이 指向하는 바는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관중들에게 自己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演出을 맡은 李효진(司法科 3년)양은 『舞臺 안과 밖의 구분을 없앤 장면의 挿入을 통해 줄거리 위주의 旣存演劇 형식을 과감히 벗어나고자 했다』고 이번 공연의 특징을 설명했다.

「…를 기다리며」의 시나리오는 朴상진(公法學科 4년)군의 창작물로 임정택(公法學科 3년)군이 기획을 맡은 전공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었음에도 비교적 수준이 상이라는 평을 받았다.